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정보해석에 대한 성별차이 연구
: 추상적 사고수준과 해석수준이론
관점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이 경 은

2017년 8월

정보해석에 대한 성별차이 연구
: 추상적 사고수준과 해석수준이론
관점

지도교수 현 정 석

이 경 은

이 논문을 경영정보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6月

이경은의 경영정보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6월

A Study on Gender Difference in Information Construal : View on Levels of Abstract Thinking & Construal Level Theories

Kyong Eun Lee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Suk H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Jun.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ung Suk Hyun, Prof.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
.....
.....
.....

Jun. 2017.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목 차례>

Abstract	vi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5
1) 연구방법	5
2) 논문구성	5
제 2장 이론적 배경	6
1. 자아해석과 성별 행동 차이	6
1) 자아해석	6
2) 소비자 선호·행동에서의 성별 차이	12
2. 행동정체성이론과 해석수준이론	18
1) 행동정체성이론	18
2) 해석수준이론	26
제 3 장 연구 가설	35
1. 연구가설의 설정	34
제 4장 정보보안 선호도 차이(연구 1)	39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0
1) 실험 연구 설계	40
2) 실험변수의 조작	43
2. 연구결과	46
1) 가설검증 결과	46
2) 결과 논의	50

제 5장 소비자행동의 차이(연구 2)	51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51
1) 실험 연구 설계	51
2) 실험변수의 조작	53
2. 연구결과	54
1) 가설검증 결과	54
2) 결과 논의	59
제 6장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 차이와 수강신청 의도의 차이(연구 3)	61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61
1) 실험설계 및 측정방법	61
2) 변수의 조작정의와 측정	63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67
1) 신뢰성분석	67
2) 타당성분석	68
3. 연구결과	70
1) 가설검증 결과	70
2) 결과 논의	79
제 7장 결론	80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0
2. 연구의 한계	83
<참고문헌>	85
<설문지>	94

<표 차례>

<표 2-1> 자아해석의 성별 차이 구분	8
<표 2-2> 성별차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	11
<표 2-3> Melnyk, Van Osselaer와 Bijmolt(2009)의 연구결과	17
<표 2-4> 행동정체성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	19
<표 2-5> 추상적 수준의 예	27
<표 2-6>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된 기존 연구	30
<표 4-1> 연구1 설문항목 구성	41
<표 4-2>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집단 분포	43
<표 4-3> 조작 점검을 위한 설문의 구성-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	44
<표 4-4> 응답 범주의 수에 따른 평가척도의 신뢰성	45
<표 4-5> 캡차의 조작점검 결과	45
<표 4-6>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에 대한 T-Test결과	46
<표 4-7>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47
<표 4-8>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의 정보보안 선호도 카이제곱 검정 결과 ..	48
<표 4-9>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의 정보보안 선호도 카이제곱 검정 결과 ..	49
<표 5-1> 연구2 설문항목 구성	51
<표 5-2> 실험 조건별 최종 피험자 수	52
<표 5-3>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집단 분포	53
<표 5-4>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평균 및 T-Test결과	55
<표 5-5>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56
<표 5-6> 남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분산분석 결과	57
<표 5-7> 여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분산분석 결과	59
<표 6-1> 연구3 설문항목 구성	62
<표 6-2> 실험 조건별 최종 피험자 수	62
<표 6-3> 시간적 거리 조작 점검을 위한 설문의 구성-조건: 2주 후	63
<표 6-4> 시간적 거리 조작 점검을 위한 설문의 구성-조건: 1년 후	63

<표 6-5> 시간적 거리의 조작 점검 결과	64
<표 6-6> 시간적 거리와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집단 분포	65
<표 6-7> 시간적 거리에 따른 거리인식 평균 및 집단 분포	66
<표 6-8>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	68
<표 6-9>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	69
<표 6-10>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주관적 시간적 거리에 대한 T-Test결과	71
<표 6-11>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의 평균	72
<표 6-12> 성별, 추상적 사고수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의도의 분산분석 결과	73
<표 6-13>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의 평균	73
<표 6-14>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의 분산분석 결과	74
<표 6-15>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수강신청의도에 대한 T-Test결과	74
<표 6-16>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에 대한 T-Test결과	76
<표 6-17> 남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시간적 거리 인식의 평균(분산분석)	77
<표 6-18> 여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시간적 거리 인식의 평균(분산분석)	78
<표 7-1> 연구 가설 검증 및 결과	82

<그림 차례>

<그림 2-1> 남녀의 시야 범위	10
<그림 3-1> 연구모형	38
<그림 4-1> 설문지에 사용된 글자 캡차	42
<그림 4-2> 설문지에 사용된 그림 캡차	42
<그림 4-3>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	47
<그림 4-4>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	49
<그림 4-5>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	50
<그림 5-1> 설문지에 사용된 쿠폰A와 쿠폰B	53
<그림 5-2>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55
<그림 5-3>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	56
<그림 5-4> 남자의 추상적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차이	58
<그림 5-5> 여자의 추상적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차이	59
<그림 6-1>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 인식차이	71
<그림 6-2>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	75
<그림 6-3>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	76
<그림 6-4> 남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시간적 거리인식	77
<그림 6-5> 여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시간적 거리인식	78

ABSTRACT

A Study on Gender Difference in Information Construal : View on Levels of Abstract Thinking & Construal Level Theories

Kyong Eun Lee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ung Suk Hyun

Commercial firms seek to induce consumer's purchase as much as possible using diverse marketing methods. In order for consumers to perceive their need to buy the products and actually buy one, the firms must assign values to their products so that consumers may feel necessary to buy certain products. These days, we witness vigorous occurrence of marketing strategies using consumer's psychological propensities. Gender difference stands out in consumer's preference behavior. In the field of shopping propensities online, males are oriented to conveniences, thinking highly of achieving the targets, while females tend to build familiarity, have hedonic shopping motives, thinking highly of views of other consumer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game designs, males are more effectively attracted by designs using spatial and visual cognitive abilities though with narrow peripheral vision, while females are by designs using linguistic skills and empathy with wider peripheral 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certain that gender difference in preferences and behaviors shown in the consumer's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might be explained by the influence of self-

construal and levels of abstract thinking. Three sessions of studies in total examined people's difference in decision-making; the research used levels of abstract thinking (high level/ low level) as an independent variable, gender (male/female)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preferen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sumer behavior, subjective perception of elapse of time (after one year/after two weeks), intention to apply for lectures as 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had findings as follows.

First, there was gender difference in consumer preference. Males with high level of abstract thinking preferred abstract objects, whereas females with low level of abstract thinking preferred concrete objects.

Second, there was difference in decision-making depending on levels of abstract thinking. The higher level abstract thinking had, the more subjective elapse of time people perceived, and there emerged remarkable difference in decision-making depending elapse of time.

Third, there emerged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relations between levels of abstract thinking and consumer's decision-making. There were bigger differences in decision-making depending on elapse of time among groups with high level of abstract thinking in males and those with lower level of abstract thinking in females.

The study found that levels of abstract thinking varied depending on gender and males were more influenced in their decision-making while having abstract thoughts, whereas females were more while having concrete thoughts. Given the argument of the existing construal level theories that the higher abstract thinking people have, the more they tend to pay attention to central, unchangeable traits of objects - resulting in more desires- this conclusion might reflect more of this researcher's male point of view with less of female one and so must be applied properly.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의 배경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어린 여자아이는 분홍 옷을 입고 인형놀이를 하게하고, 남자아이는 파란 옷을 입고 자동차놀이를 하게한다. 남자는 사물에 관심이 많고 여자는 사람에 관심이 많다(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2011). 존 그레이(1992)는 본래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기에 남녀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잘 지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성별차이의 원인을 사회심리적 연구에서 찾아보면 남녀가 겪는 사회화 과정에서 정립된 자아해석(Self-construal)의 성별차이다(Cross and Madson, 1997). 심리학 이론과 방법론의 진보는 인간 행동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강력한 조절자로서 자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고, 자아는 자신과 타인에 관한 지각, 기억, 추론을 지시하며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조직한다(Cross and Madson, 1997). 즉 자아는 인간의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아해석과 관련하여 서구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아해석의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한다(Guimond et al., 2006).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인지, 감정, 행동에서 다름을 밝히고 성별에 따른 소비자 충성도, 소비자 행동, 정보처리, 상호작용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Melnyk et al., 2009; 홍영일, 2016; Meyers-Levy and Maheswaran, 1991). 남자는 여자보다 양적 문제해결 및 공간능력 테스트를 더 잘 수행하는 반면, 여자는 언어능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다(Roalf, Lowery and Turetsky, 2006). 그러나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남녀의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은 행동의 차이를 밝히고 있을 뿐 남녀의 인식차이를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드물다. 또한 국내 및 국외 자아해석관련 연구들에서 남녀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김현미, 2006). Cross와 Madson(1997)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상호 의존적이고 남성들은 여성보다 독립적이고 개인적이다. Baumeister와 Sommer(1997)는 남녀가 동등하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성이 소수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성열(1998)은 관계성에서 성별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개별성측면은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동직(1999)의 연구에서는 개별성측면은 성별차이가 나타났지만 관계성은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Trope과 Liberman의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은 어떠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사람들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식별수준, 곧 해석수준의 차이를 통해 행동 반응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규명하는 이론이다(Trope and Liberman, 2003, 2010). 해석수준이론의 추상적 사고는 Vallacher와 Wegner(1989)의 행동정체성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든 행동이 how라는 행동으로 수행되는 낮은 수준의 정체성부터 why라는 행동으로 수행되는 높은 수준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Vallacher and Wegner, 1989). 해석수준은 상위수준해석과 하위수준해석으로 구분되는데, 상위수준해석은 추상적 의미와 목적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하위수준해석은 구체적인 방법과 즉각적이고 표면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평가를 진행한다.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된 연구로 Irmak, Wakslak와 Trope(2013)은 구매자의 가격과 판매자의 가격간의 차이가 제품의 가치를 해석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임을 밝혔다. Zhao and Xie(2011)는 제품평가를 할 때 가까운 친구의 추천 정보는 하위수준해석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사람의 추천 정보는 상위수준해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 추상적 사고 및 구체적 사고와 관련된 연구로서 Burgoon, Henderson과 Markman(2013)은 어떤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떤 추상적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며 이는 더 추상적일 수 있고 혹은 덜 추상적일 수 있다. 사람들의 추상적 사고는 삶의 만족도, 자기 통제 및 창의성과 같은 개인의 결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 차이와 자아해석의 남녀 간의 차이는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즉, 해석수준이론의 연구 검토에서 광고, 문제특성, 조절초점, 제품지식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의 차이가 사람들의 해석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Eyal et al., 2004; Fujita et al., 2008; Kim et al., 2009; Ledgerwood et al., 2010) 이를 남녀의 자아해석이 다르다는 것(Cross and Madson, 1997; Baumeister and Sommer, 1997; Guimond et al., 2006)과 함께 고려하여 진행한 연구는 드물다. 인지, 감정 및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는 자아해석만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해석수준이론과 행동정체성이론에서의 추상적 사고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해석의 성별차이를 Trope과 Liberman이 발표한 해석수준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는 남녀가 갖고 있는 추상적 사고수준과 자아해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예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자아는 자신과 타인에 관한 지각, 기억, 추론을 지시하며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조직한다(Cross and Madson, 1997). 즉 자아는 인간의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아해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은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고, 여성은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한다(Cross and Madson, 1997). 해석수준이론에서는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 차이가 발생하는데,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대상을 추상적이고 목표와 관련된 본질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Trope and Liberman, 2010).

심리적 거리는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심리적 거리에 따라 소비자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Fujita et al., 2008; Kim et al., 2009; Ledgerwood et al., 2010).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과 추상적 사고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개인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Catherine Loveday(2016)는 시간이

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며,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거리를 단순히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성향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ashir et al.(2014)는 주관적으로 시간을 가까운 것으로 경험할 때 먼 미래의 목표이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해석하고 목표추구를 위해 동기화된다. Peetz et al.(2009)는 미래의 학문적 목표를 주관적으로 가까운 거리로 인식한 학생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한 결과 학업 동기 및 행동이 크게 향상되었다.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 차이와 자아해석의 남녀 간의 차이는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기존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추상적 사고가 높아져 본질적인 바람직한 사고와 관련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인이 느끼는 시간적 거리는 주관적이며 자아해석의 성별차이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의 시간적 거리 인식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행동의 차이를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심리적 거리에서 발생하는 추상적 사고수준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남녀 간의 행동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아해석과 개인의 추상적 사고수준이 영향을 미쳐 시간을 주관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하였다. 시간적 거리의 주관적 인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고 여자와 남자의 자아해석과 해석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성별에 따라 행동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1) 연구 방법

제1절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 방법과 실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서적과 논문 등의 문헌자료와 인터넷상의 각종 연구 보고서,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자아해석, 해석수준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총 세 번의 실험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들은 SPSS 12.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t-test,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과 같은 통계적 분석 방법들이 가설검증에 사용되었다.

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아해석의 성별차이와 행동정체성이론, 해석수준이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제3장 연구의 설계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과 제5장, 제6장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세 번의 연구와 실험설계, 가설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가설검증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포함시켰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자아해석과 성별 행동차이

1) 자아해석

자아해석(Self Construal)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보거나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것과 같은 심리적 성향이다. Cross 와 Madson(1997)에서 심리학 이론과 방법론의 진보는 인간 행동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강력한 조절자로서 자아(Self)에 대한 인식을 증가 시켰고, 자아는 인간의 선택 의지와 의지의 원천으로 자신과 타인에 관한 지각, 기억, 추론을 지시한다. 또한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조직하고 지시한다. 사람들은 자기관점의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며, 자아를 통하여 의도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사회세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자아는 행동의 많은 측면의 동기 부여자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고, 직업을 선택하고, 공공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행동은 자신을 확인하거나 향상시키거나, 특정한 원하는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유발된다.

인지와 자아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은 두 가지 기본 형태를 취한다. 첫째 자아해석은 자신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믿음의 표현을 포함한다. 둘째 자아는 정보처리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ross, Morris and Gore, 2002). 요약하면 자아는 고차원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조직하고 지시하며, 정보처리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준다.

자아해석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적응적인 자아로서 관계성, 소속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 이런 특성은 여자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신의 능력, 관심, 목적에 초점을 둔 자아로서 자율적이고 자신의 목표를 증진시키는 것에 긍정적 관점을 가진다. 자신을 해석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 행동은 덜 중요하다. 이런 특성은 남자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Markus and Kitayama, 1991). 자아해석은 문화적인 차이와 성별차이로 크게 비교연구 되고 있다. 문화차는 자신이 태어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고, 성별차는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성 역할에 따라 자아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사회화 과정에서 심리적 차이가 형성되게 된다. 자아해석의 성별차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남자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세하고, 여자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된다(Cross and Madson, 1997).

본 연구에서는 인지, 동기부여, 감정 및 사회적 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차이를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자아해석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아해석의 성별차이에 대한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서구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아해석의 남녀차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남성과 여성은 자아 표현에 포함되는 속성이 다른데,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한다(Guimond et al, 2006). 이러한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독립적 자아해석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두 자아 해석방식을 한 개인이 모두 가질 수 있다(Cross and Madson, 1997).

Cross와 Madson(1997)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자신이 상호 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상호의존성). 또한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와의 상호 연관성, 사회적 관계, 사회 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고, 여성들은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둔다. 반대로 남성들 문화는 보다 독립적이며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개성을 추구한다(독립성).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가진 개인은 분명히 관계를 원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종종 개인주의적 목표를 반영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성 주장으로 독창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람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가진 개인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Cross와 Madson(1997)에 따르면, 이러한 자아해석의 차이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의 차이의 결과이다.

또한 Baumeister와 Sommer(1997)는 남녀가 동등하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주장

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차이점은 여성이 소수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관계적 상호 의존성). 반면 남성은 보다 추상적이고 큰 집단의 사람들 (집단적 상호 의존성)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여성과 남성의 자기 해석의 상호 의존성 대 독립성 관점에 맞는 많은 발견이 관계적 상호 의존성 대 집단적 상호 의존성 관점과 동등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표 2-1> 자아해석의 성별차이 구분

구분	남성	여성
McGuire, 1982 Guimond et al, 2006	독립성	상호의존성
Lyons, 1983 Mackie, 1983 Pratt, Prancer, Hunsberger, & Manchester, 1990 Stem, 1990	분리성	연결성
Simmons & Rosenberg, 1975 Stake, 1992 Zuckerman, 1985	권력과 자급자족	관계
Morris Rosenberg, 1989 Thoits, 1992	사회적 지배, 인성	대인 관계, 감수성

Cross, S. E., and Madson, L.,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2, No. 1, 1997, 8-9.

Cross와 Madson(1997)에 따르면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 측면에서 자신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성에 관해서 스스로를 묘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아에 대한 설명에 관계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신을 평가하라는 질문을 받으면 남성은 독립과 관련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 Buunk와 Van Yperen(1989)은 독립적인 것과 상호 의존적인 자아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은 사회적 비교가 다른 사람들과의 유사성을 강조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이 경우 유사성은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친밀감에 도움을 준다. 남성은 사회적 비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비교가 고유성 또는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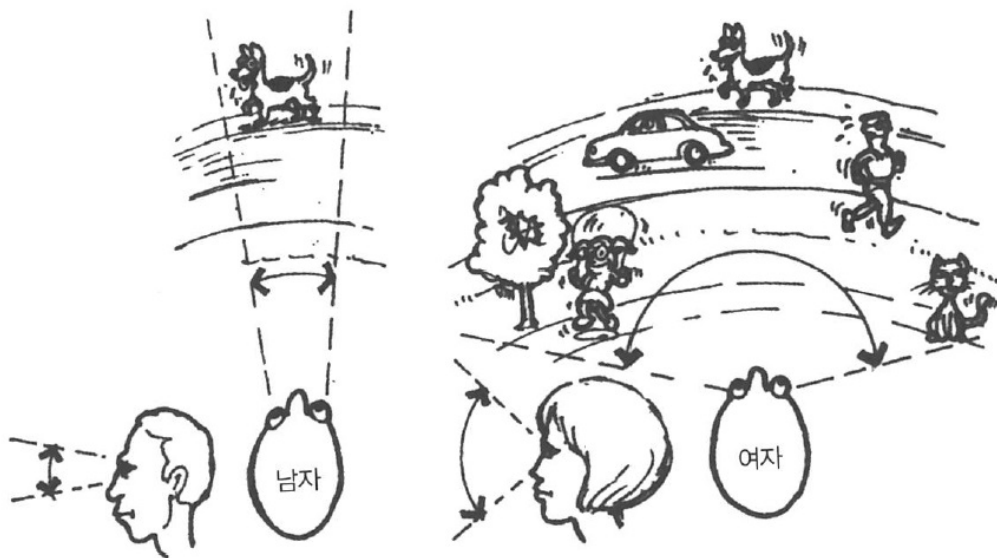
Autophotographic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은 자신을 묘사하는 일련의 사진을 찍었는데,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사진을 찍었고 가족사진을 남성들보다 더 많이 포함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혼자 찍은 사진이 많았다(Clancy and Dollinger, 1993). 청소년의 자기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녀들이 남성보다 대인 관계 및 감수성과 관련된 "자기 가치"를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대조적으로, 소년들은 소녀보다 사회적 지배와 인성과 관련된 특성과 행동을 평가했다. 성인에 대한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에서 Thoits(1992)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정체성(예: 배우자, 친구, 아들 또는 딸)의 관계 중심적 측면을 남성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Cross and Madson, 1997).

여성은 남성보다 주변시야를 넓게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살아온 외부환경 때문으로 남자는 사냥을 하며 가족을 보호해야 했고, 여자는 동지를 지키며 양육을 해야 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남자는 멀리 있는 사냥감을 찾기 위한 시야를 갖기 위해 마치 망원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좁고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발달한 것이고, 여자는 동지 주변을 살피며 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넓은 시야를 갖도록 발달해 온 것이다(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2011). 남녀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남자는 사물과 대상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여자는 넓은 주변시야로 세상을 크고 넓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여자의 두뇌는 사람과 얼굴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남자의 두뇌는 대상과 형태에 반응하도록 회로처리 되어 있다. 따라서 여자는 관계와 협조를 원하지만 남자는 권력과 지위를 원하게 되었다(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2011).

Roalf, Lowery와 Turetsky(2006)는 인지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뚜렷하다. 남자는 여자보다 양적문제해결 및 공간 능력 테스트를 더 잘 수행하는 반면 여자는 언어문제해결, 문법, 언어능력 테스트를 더 잘 수행한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시각적, 공간적, 방향성을 포함하여 시각적 작업에 뚜렷한 이점을 보여준다. Roalf, Lowery와 Turetsky(2006)의 연구에서는 전체수준(global level)과 국부수준(local

level) 문제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반응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뇌 기록(ERP)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ERP데이터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전체수준(global level)과 국부수준(local level)의 반응시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두 가지 조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였으며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자는 국부수준(local level) 문제에서 더 빠른 반응을 보였다.

<그림 2-1> 남녀의 시야 범위



자료: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2011),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김영사, 2011, 44.

정보처리과정과 관련하여 Meyers-Levy와 Maheswaran(1991)은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정보처리 과정을 규명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광고메시지를 처리할 때 메시지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교화를 수반하며, 메시지의 세부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존하는 휴리스틱 방식의 정보처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는 이타적이며 상대방에게 민감하며 정보를 포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이다. 따라서 정보탐색에 있어서 여자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성별과 자아해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비자 행동에서 자아해석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이 다

르고 마케팅 연구에서의 성별차이는 시장세분화의 기본적인 변인으로서 광고자극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를 예측하는데 효용이 입증되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수용에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2>참고).

<표 2-2> 성별차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내용
조혜자	2005	젠더 범주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김태웅, 엄명용	2006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이러닝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200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손광민, 차영아, 남상인	2008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의 관계
박상철, 정남호	2010	성별차이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이용행위에 대한 이해.
장혜정, 경병표, 이동열, 이완복, 유석호	2011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용 게임 디자인 요소 분석
이태희	2011	인터넷 쇼핑행동에서 성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현정석, 박찬정, 하환호	2013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대한 성별 시간관 차이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박찬정, 현정석, 진희란	2016	문장구조 중심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해력에 관한 고등학생들의 성별 및 추상적 사고수준별 차이 분석
김은희	2016	모바일 광고 수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강정애, 김현지, 이상수	2016	이모티콘 유형에 따른 감정소통의 효과성 연구-수신자의 성별 및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혜림, 조재희	2016	청소년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용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성별 및 지역 차이
홍영일	2016	컴퓨터그래픽 표현유형에 따른 소비자 성별, 세대별, 직업별 광고효과 차이 연구

2) 소비자 선호·행동에서의 성별차이

성별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기존 연구들에서 여자와 남자는 생각의 방식이 다르고 의사소통의 방식,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다르다. 남자는 단순히 구매를 목적으로 하지만 여자는 구매 이상의 감정적 측면을 중요시 한다(서문식, 김상희, 2002). 남자와 비교하여 여자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중요시하고 남자는 이용가능한 정보 중에서 소수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으로 행동한다(Meyers-Levy and Maheswaran, 1989, 1991). 최근 소비자의 심리적 성향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정보처리 및 소비자 행동 차이는 기업의 마케팅 접근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별차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인터넷 쇼핑 성향에 대한 연구(이태희, 2011)에서는 온라인 쇼핑 동기, 정보 탐색, 온라인 쇼핑 행동 등에서 성별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남자들은 좀 더 사회적이고 편의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쇼핑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반면 여자들은 인터넷 쇼핑을 통한 친밀감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쾌락적 쇼핑동기가 높았으며 다른 사용자의 고객후기나 평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다른 마케팅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서문식과 김상희(2002)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소비자 행동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경험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는 중요하다. 연구결과 긍정적 감정은 성별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 감정은 여자의 경우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쇼핑몰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쇼핑몰의 '콘텐츠'가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자의 경우 '신뢰', '상호작용성'이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홍영일(201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성별에 따라 컴퓨터그래픽 표현유형에 따른 광고효과가 달라짐을 밝혔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표현유형을 “고, 저, 무” 3가지로 하여 표현유형별 광고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여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 높고 감정적 표현을 많이 하며, 남자는 개인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성취 지향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하여 광고를 해석하며 좀 더 포괄적으로 정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결과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모두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에 따른 교육용 게임 디자인에 관한 연구(장혜정 등, 2011)에서는 남자는 주변 시야가 좁지만 높은 공간 지각 능력 및 시각적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물과 활동위주의 학습이 효과적이며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학습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여자는 주변 시야가 넓고 언어능력 및 공감 능력이 높음을 고려하여 튜토리얼 시스템을 활용하고 상상력을 높일 수 있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 학습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등 성별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다름을 설명하였다.

이혜림과 조재희(2016)는 청소년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서 성별과 지역별 차이를 발견하였다. SNS를 통한 온라인 상호 작용은 청소년들의 SNS 사용 동기의 중요성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반드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4-19세 청소년(72%)이 소셜 미디어를 즐거움을 위해 이용했으며, 24%만이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 SNS 이용에 대한 이러한 강한 엔터테인먼트 지향성은 청소년들이 '조언' 또는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하도록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도시에 사는 남자 청소년들에게서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용은 결속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행동에 따른 연구에서 남자는 지위, 명성 및 힘에 초점을 맞추고 여자는 더 애정어린 행동을 보이고 의사소통 및 관계지향적인 행동은 보인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프로필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연구(이효신, 2017)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 이용빈도가 높고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그루밍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희(2016)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에 대한 태도와 의도, 행동에 미치는 요인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모바일 광고의 주 이용계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오락성과 신뢰성, 정보성 등이 모두 모바일 광고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모바일 광고 메시지 인식 및 수용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모바일 광고를 받고 난 후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광고메시지를 더 많이 읽고 메시지를 받는 즉시 읽었으며,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광고메시지를 신뢰하고 모바일 제품 광고정보에 호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철과 정남호(2010)는 성별차이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이용행위의 온라인 구전성향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구전은 온라인 쇼핑몰 게시판에 올라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사용후기, 평가를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를 읽어봄으로써 정보를 얻는다.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온라인 구전성향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의사결정 지원에 의해 온라인 구전이 영향을 미치며 구전을 통한 쇼핑 시간절감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반면 여자는 만족에 의해 온라인 구전이 영향을 미치며 구전이 신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온라인 구전이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온라인 구전이 소비자의 시간 절감, 신뢰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관련하여 현정석 등(2013)은 남녀의 시간관 차이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성별 시간관과 휴대폰 중독 차이를 분석하고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시간관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Zimbardo는 시간관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지금 현재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을 가지며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눈앞의 만족을 미루고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성향을 가진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신념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높을수록, 현재지향적 시간관이 낮을수록 휴대폰 중독이 낮다. 연구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휴대폰 중독값이 평균적으로는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폰 중독값과 현재지향적 시간관이 감소하였고 남학생은 휴대폰 중독값과 현재지향적 시간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휴대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

적 시간관을 높이고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낮추는 교육이 필요하고 남학생에게 이러한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현미 등(2006)은 자아해석(self-construal,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심리적 적응을 잘한다.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의 정도,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여 성별에 따른 자아해석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아해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두 종류의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자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여자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윤진(2016)은 중학생의 기술적 문제해결력이 성별에 따라 사고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문제해결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술교과와 문제해결력은 다른 교과에 비해 중요시되고 있다. 기술적 문제 해결 사고는 확산적, 수렴적, 시각적 문제 해결 사고로 나뉘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고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문제해결 사고력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렴적 문제해결 사고에서 성별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기술적 문제해결력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으며 기술 분야에서 남학생의 적성이 더 잘 맞는다는 사회적 통념을 수정할 수 있다.

주의력(attention)과 기억(memory) 관련하여 Ickes et al.(1986)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상호 작용의 파트너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커피 테이블과 책꽂이가 있는 작은 방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성별이 다른 쌍과 성별이 같은 쌍)가 소파에 앉아있었다. 5분 동안 그들의 상호 작용은 비밀리에 녹음되었다. 5분간의 상호 작용 후, 참가자들은 테이프를 보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도록 요청 받았다. 기록은 자기와 파트너에 관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파트너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포함한 여러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여자들은 파트너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이 많았고 남자에 비해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더 많이 나왔다. 이것은 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가까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한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남자보다 얼굴에 더 좋은 기억을 보였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거리에서 잠깐 마주친 다른 사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기억하고(Yarmey, 1993), 수년이 지난 후에도 고등학생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을 더 많이 기억하였다(Bahrlick, Bahrlick, and Wittlinger, 1975).

소비자 충성도의 남녀 차이에 대하여 연구한 Melnyk, Van Osselaer와 Bijmolt (2009)는 여성 소비자는 남성 소비자보다 개별 서비스 제공자에 충성도가 높지만, 충성도의 대상이 집단일 때는 반대이며, 성별에 따른 개별 직원에 대한 충성도와 회사에 대한 충성도에 대해 유의한 교차 상호 작용 효과를 찾았다. 남성과 여성이 충성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을 살펴보자. "나는 ...에게 충성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20개의 진술을 만들고, 참가자들에게 가상 시나리오 대신 실제 충성도에 대해 질문했다. 참가자들의 응답이 개인 대 그룹뿐만 아니라 개별 직원 또는 조직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코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즉 특정 직원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 업체는 여성 참가자 충성도 대상을 더 많이 차지하는 반면 기업이나 조직은 남성 충성도 대상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성도의 대상이 개인일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와 그들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하였다. 실험결과 남성소비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직원)보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았고 여성소비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 자아해석의 관계형 상호 의존성과 집단적 상호 의존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과 조직이 비사회적으로 간주되어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여성은 개인직원에 강한 충성을 보인 것이고 남성은 집단적 상호의존성인 자아해석으로 인해 충성도가 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3> Melnyk, Van Osselaer와 Bijmolt(2009)의 연구결과

충성도 대상 유형	평균		
	여자 (응답수)		남자 (응답수)
참가자들에 의해 개인으로 인식되는 대상	10.16	>	7.53
참가자들에 의해 그룹으로 인식되는 대상	8.21	<	11.95
코더에 의해 개인으로 코딩 된 대상	3.16	>	1.42
코더에 의해 그룹으로 코딩 된 대상	7.63	<	9.68
코더에 의해 종업원 / 서비스 제공자로 코딩 된 객체	1.27	>	.22
코더에 의해 회사 / 조직으로 코딩 된 객체	3.37	<	5.11

Melnyk, V., Van Osselaer, S. M., and Bijmolt, T. H., "Are women more loyal customers than men? Gender differences in loyalty to firms and individual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Marketing*, Vol. 73, No. 4, 2009, 86.

Crosnon과 Gneezy(2009)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 선호, 사회적 선호 및 경쟁 선호의 성별차이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심리학 및 사회학에 대한 많은 문헌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위험 회피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사회적 선호는 남자보다 세심한 단서, 예를 들어 이 직업에 속한 여자의 비율 등에 민감하고 경쟁 상황에서 여자의 선호도가 남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와 여자의 자아해석의 차이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해석수준의 차이를 만들 것이고 따라서 남녀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대상에 대한 행동, 의사결정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차이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강한 남자는 원거리적 시각을 가지고 보다 추상적이고 상위수준의 해석을 할 것이며,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강한 여자는 근거리적 시각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하위수준의 해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 행동정체성이론과 해석수준이론

1) 행동정체성이론

행동정체성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식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행동의 정체성 구조는 행동이 수행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하위수준의 정체성부터 왜 행동이 수행되는지를 나타내는 상위수준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된다. 하위수준의 정체성은 행동의 세부사항을 전달하는 작업 수행 방법을 나타내고, 상위수준의 정체성은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전달하며 행동이 수행된 이유 또는 그 효과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행동정체성 수준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행위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Vallacher and Wegner, 1987).

Vallacher와 Wegner(1989)는 행동정체성척도(Behavior Identification Form, BIF)를 개발하여 측정되는 행동정체성 수준에 의한 개인의 차이를 증명하였다(표 2-4). 모든 행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식별될 수 있다. 즉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는 수준이 다르다. <표 2-4>에서 보듯이 행동정체성 척도의 각 항목에는 행동과 행동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과 추상적 표현이 있다. 정답은 없으며 응답자는 자신을 위한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설명을 선택하면 된다. BIF는 개인차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추상적 표현을 선택한 문항이 많을수록 개인의 추상적 수준이 높아진다고 본다. 추상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행동정체성 이론은 이러한 행동식별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동역량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행동정체성이론에서 낮은수준 해석은 행동의 구체적 측면인 '수단(HOW)'과 관련되고, 높은수준 해석은 행동의 추상적 측면인 '목적(WHY)'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표 2-4> 행동정체성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

^a 추상적 표현(Higher-level alternative)

상황			
1	목록 만들기	① 조직화하기 ^a	② 할 일 적기
2	읽기	① 인쇄물의 줄 따라 내려가기	② 지식 얻기 ^a
3	군대에 지원하기	① 국가의 방어를 도와주기 ^a	② 군대지원 신청서 쓰기
4	세탁하기	① 옷에서 냄새 없애기 ^a	② 옷들을 세탁기에 넣기
5	사과 집기	① 무언가 먹을 것을 획득하기 ^a	② 나뭇가지에서 사과를 따기
6	나무 베기	① 도끼 휘두르기	② 빨감 얻기 ^a
7	카펫을 깔기 위해 방 크기를 측정하기	① 리모델링 준비하기 ^a	② 출자 사용하기
8	집 청소하기	① 개인의 청결함을 보여주기 ^a	② 진공청소기로 방을 청소하기
9	방을 페인트 칠하기	① 붓 칠하기	② 방을 새롭게 보이게 만들기 ^a
10	임대료 지불하기	① 살 장소를 유지하기 ^a	② 지불수표 작성하기
11	실내 화초 기르기	① 식물에 물을 주기	② 방을 멋있어 보이게 만들기 ^a
12	문 잠그기	① 열쇠로 자물쇠 걸기	② 집을 보호하기 ^a
13	투표하기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a	② 투표용지에 마킹하기
14	나무에 오르기	① 좋은 경치 보기 ^a	② 나뭇가지 붙잡기
15	성격 테스트 질문지 기입하기	① 질문에 응답하기	②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기 ^a
16	이빨 닦기	① 충치 예방하기 ^a	② 입 안에서 칫솔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기
17	시험보기	① 질문에 응답하기	② 개인의 지식수준을 보여주기 ^a
18	누군가와 인사하기	① 안녕이라 말하기	② 친근함을 나타내기 ^a
19	유혹에 저항하기	① “아니오”라고 말하기	② 도덕적인 용기를 보여주기 ^a
20	먹기	① 영양분을 섭취하기 ^a	② 씹고 삼키기
21	정원 가꾸기	① 식물 심기	② 신선한 채소를 얻기 ^a
22	자가용으로 여행하기	① 지도를 보며 길 따라가기	② 시골길 구경하기 ^a
23	충치 치료하기	① 치아를 보호하기 ^a	② 치과의사에게 가기
24	아이에게 말 걸기	①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a	②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25	초인종 누르기	① 손가락 움직이기	② 누군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a

Vallacher and Wegner, "Levels of Personal Agency: Individual Variation in Action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4, 1989, 664.

해석수준이론과 행동정체성이론에서 사람들은 상황(시간, 공간, 가상)에 의한 심리적 거리로 인하여 추상적 사고수준이 활성화되거나, 본인의 고유한 해석수준에 따라 추상적 사고수준이 활성화된다. 해석수준과 추상적 사고와의 관계를 연구한 Forster, Friedman과 Liberman(2004)은 먼 미래 시간 관점이 정신적 표상이 해석되는 수준을 변경함으로써 추상적 사고를 촉진하고 구체적 사고를 방해하는지 연구하였다. 통찰력과 창의성은 추상적 해석으로 향상될 수 있고, 사건의 먼 시간 관점은 추상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먼 미래의 시간 관점이 통찰력과 창조적 사고 모두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측정을 사용한 6번의 실험을 통하여 시간적 거리에 따라 통찰력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분석적 문제해결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피험자들은 먼 미래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음날 해결해야 할 과제에 참여하는 상황보다 더 많은 통찰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먼 미래(1년 후)로 질문을 받은 피험자들이 가까운 미래(내일)에 해결해야 할 과제에 참여한 피험자들보다 추상적 정보처리가 필요한 문제를 더 많이 풀었고 더 창의적이었다. 반면 분석적 문제 해결력을 살펴보기 위한 4가지 논리퍼즐로 구성된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에서는 먼 미래 시간 관점이 분석적 추론을 강화하기 보다는 약화시켰다.

Freitas, Gollwitzer와 Trope(2004)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관련된 특정 목표에 대하여 프라이밍을 통한 추상적, 구체적 사고방식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모든 행동은 낮은 수준으로부터 추상적인 높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해석은 행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이유(why)로서 행동의 1차적 관심사이고, 낮은 수준의 해석은 행동의 과정을 나타내는 어떻게(how) 측면으로 행동의 2차적 관심사이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는 행동에 대하여 “열쇠를 돌리는 것”이라는 문을 잠그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설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해석이고, “집을 지키는 것”이라는 왜 문을 잠그는가에 초점을 맞춘 설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해석이다(Vallacher and Wegner, 1989). 두 번의 실험에서 건강개선과 학업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추상적 혹은 구체적 사고방식으로 프라이밍 하였다. 사고수준을 프라이밍하기 위하여 추상적 사고방식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는 건강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왜(Why)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구체적 사고방식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는 “어떻게(How)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려하도록 지시 받는다. 참가자들은 그들이 왜 혹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다이어그램에 기재함으로써

추상적 혹은 구체적 차원으로 프레이밍 된다. 추상적 사고방식으로 프레이밍 된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자기평가 상황이 다른 사람의 장기적인 자기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고 심지어 자기 비판적 피드백을 추구할 것을 기대한다. 반면 구체적인 사고방식으로 프레이밍 된 참가자는 다른 사람들의 자기 평가 상황이 즉각적인 안락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이 즐겁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

Vallacher, Wegner와 Somoza(1989)는 행동정체성과 언어유창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행동정체성이론은 행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자에 의해 식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행동 식별 정보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합성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쉬운 행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행동의 영향 및 함축적 의미)으로 식별되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행동의 세부 사항)으로 식별 될 때 최적의 행동 식별이 존재한다. 언어의 유창함과 행동정체성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피험자는 설득이 쉬운 청중(easy audience)과 설득이 어려운 청중(hard audience)에게 '대학생의 부정행위에 관한 보다 엄격한 대학방침'이라는 주제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절반은 높은 수준으로 행동의 중요성(설득의 목표)을 생각하도록 하였고, 절반은 낮은 수준으로서 의사소통의 매커니즘(말더듬과 같은 언어의 비유창성)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설득이 쉬운 청중은 높은 수준의 행동을 생각할 때 효과적이었고 설득이 어려운 청중은 낮은 수준의 행동을 생각할 때 더 효과적이었다.

Boroditsky와 Ramscar(2002)의 연구에서는 추상적 사고가 경험에 기반한 지식으로부터 유추하여 구축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다음 주 수요일 회의가 2일 앞으로 변경되었다. 회의는 무슨 요일일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 4번의 실험을 통하여 앞으로 이동하는 경험과 생각이 시간도 앞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제 자신이 여행으로 이동한 거리가 길거나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림을 그렸을 때 변경된 회의는 금요일이라고 응답하였고, 대상을 자신을 향해 움직이게 하거나 카페의 줄을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사람, 즉 이동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월요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공간 사고와 공간에 대한 직접 경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정석 등(2014)은 추상적 사고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2차 행동정체성 문항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제안된 Vallacher와 Wegner(1989)의 행동정체성 척도 하나만으로는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추상적 사고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차 행동정체성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교육방법에 의한 추상적 사고수준의 사전-사후 측정이 가능하게 함이 목적이 있다. 개발된 2차 행동정체성 측정 항목들은 Vallacher와 Wegner(1989)의 행동정체성 척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사고수준을 반영하는데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철과 이경렬(2015)의 연구에서는 공인영어시험이라는 실험물을 사용하여 시간적 거리와 행동정체성 수준에 따른 광고메시지의 선호를 살펴보았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의 두 가지 그룹으로 집단을 분리하여 시간적 거리감을 적용하였고, Vallacher와 Wegner(1989)의 BIF를 활용하여 해석수준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공인영어시험 광고에 대하여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대학생 집단과 BIF가 낮은 집단은 구체적 광고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적 거리가 멀거나 BIF가 높은 집단은 추상적인 광고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윤과 김민혜(2012)의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에 따른 행동정체성 수준과 광고 메시지 유형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후(한달 후)에 커피머신을 구매하는 상황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어떻게’(‘왜’)를 강조한 광고메시지로 구성하였으며 BIF를 활용하여 해석수준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에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해석수준이 높은 집단은 ‘왜’를 강조한 메시지를, 해석수준이 낮은 집단은 ‘어떻게’를 강조한 메시지에 호의적이었다. 반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해석수준에 상관없이 ‘어떻게’를 강조한 구체적 메시지를 선호하였다. 이 연구는 시간적 상황과 개인의 성향이 일치할 때와 일치하지 않을 때를 비교함으로써 해석수준이 높은 소비자는 상황에 따른 메시지의 영향이 더 크고, 해석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상황에 상관없이 성향에 맞는, 즉 구체적 메시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였다.

박후동과 하환호(2015)는 행동정체성 수준과 광고메시지 수준의 일치여부와 할부기간에 따라 광고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BIF를 활용하여 행동정체성 수준을 측정하고, 태블릿 PC에 대한 구체적인 How 메시지와 추상적인 Why 메시지를 구성하였다. 할부기간으로는 일시불과 6개월 할부의 시간적 거리를 구성하였다. 연

구 결과 구체적 메시지는 행동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사람들에게서 광고효과가 높았고, 추상적 메시지는 행동정체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높은 사람들에게서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수준이 일치할 때 영향이 높은 것이 증명되었다. 시간적 거리와 관련하여 일시불 조건에서는 행동정체성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메시지 유형별 구매의도의 차이가 없었고, 행동정체성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How 메시지에서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6개월 조건에서는 반대로 행동정체성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메시지 유형별 구매의도의 차이가 없었고, 행동정체성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How 메시지에서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할부기간에 따라 메시지수준과 행동정체성 수준의 영향이 달라졌다.

박찬정 등(2016)은 고등학생의 추상적 사고수준과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사고수준과 언어경험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밝혔다. 행동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여 추상적 사고수준을 측정하였고 파이썬 기반의 러플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은 언어 경험이 작을 때 프로그램 이해력이 높고,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프로그램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러플은 기존의 C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소 다른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은 더욱 구체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더 잘 해결함을 알 수 있다.

현정석과 박찬정(2016)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초·중학생들의 문제해결력 관계분석에서는 행동정체성척도를 이용하여 추상적 사고수준별 사고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추상적 사고가 높은 집단의 경우 그림 기반의 추상적 사고력 파악에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하였고, 언어 기반의 분석력과 통찰력은 차이가 없었다.

김경호 등(2013)의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에 따라 소비자의 마음가짐(mind-set) 이(구체적 vs 추상적) 타협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타협대안은 제품의 속성이 바람직한(desirable) 속성과 수단적(feasible)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에 타협대안의 선택이 감소하였고 시간적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타협대안의 선택이 높았다. 하지만 시간적 거리가 타협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의 속성이 바람직함과 수단적 속성이 함께 조합된 경우에만 나타나며 바람직한 속성으로만 구성이 된 경우에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소비자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체적 마음가짐에 있는 경우 시간적 거리의 영향력이 감소(주관적 시간거리를 짧게 느끼도록 만들어)하여 타협대안의 선택이 크게 나타났다.

Fujita와 Sasota(2011)는 자기 통제와 해석수준과 관련하여 목표 관련 높은 수준의 해석이 자기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보다 높은 목표보다 구체적이고 낮은 수준의 이용 가능한 보상을 선택할 때 자기 통제에 실패한다. 반대로 높은 수준의 해석은 판단 및 결정에서 높은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정보처리를 수행하므로 자기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과 또는 사탕을 간식으로 선택해야 하는 다이어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건강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여 간식으로 사과를 선택해야 한다. 맛이라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음식의 특징에 집중하면 사탕을 선택하게 되고, 건강이라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의미인 음식의 특징에 집중하면 사과를 선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 번의 실험을 통하여 사람들이 유혹을 피하고 자기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더 높은 수준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나무를 넘어 숲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먼 미래로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정신적 표상이 이루어져 창의성과 자기통제력이 더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해석은 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하기 때문에 유혹에 강하고, 반면 낮은 수준의 해석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강지현 등(2012)은 해석수준이론과 원시안이론을 보상물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상물을 실용적 보상물과 쾌락적 보상물로 구분하여 원시안 수준에 따른 선호도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낮은 원시안 수준의 소비자 중 상위해석수준을 가진 소비자는 쾌락적 보상물을 선호하고, 하위 해석수준을 가진 소비자는 실용적 보상물을 선호하는 것을 보였고, 높은 원시안 수준의 소비자는 선호도에 변화가 없었다.

Irmak, Wakslak과 Trope(2013)은 판매 및 구매 가격은 제품의 저수준 및 고수준의 의사결정 기능의 가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판매자는 구매자와 소유자보다 제품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였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티켓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판매자의 경우, 콘서트를 높은 수준에서 해석한다. 콘서트의 바람직성(유명한 연주자, 콘서트의 즐거움 등)은 높은 수준의 해석이고, 콘서트의 실행가능성(집에서 콘서트홀까지 거리, 가는 방법, 주차장 등)은 낮은 수준의 해석에 해당한다. 판매자는 콘서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바람직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것이고, 구매자는 실제 티켓을 사용하게 되므로 바람직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가능성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판매자는 제품의 주요 기능에 맞추어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구매자는 제품의 주요 기능과 구성측면도 모두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Vallacher와 Wegner(1989)의 행동정체성척도(BIF)를 적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낮은 수준의 항목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선택하면 “0”으로 코딩하고, 높은 수준의 바람직성을 선택하면 “1”로 코딩하여 바람직성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해석으로 판단한다. 판매자 또는 구매자, 소유자로 무작위로 배정된 참가자들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 소유자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상상하게 된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BIF를 통해 해석수준을 측정한 결과, 판매자 입장으로 상상한 집단이 높은 수준의 해석수준을 나타냈고, 구매자와 소유주는 판매자보다 낮은 수준의 해석수준을 나타냈으며 구매자와 소유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석수준이론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환상이라고 하였으며,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임을 밝혔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분명 주관적일 것이다. 바쁘고 흥미로운 일을 처리할 때에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으로 느껴지고, 단조롭고 지겨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리적인 시간적 거리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적 거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Hansen과 Trope(2012)은 실험을 통하여 구체적 마인드 셋에 있는 참가자들이 추상적 마인드 셋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ing Theories)은 사물과 사회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의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 중 하나이다. 이중처리 이론은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함에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차원과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차원의 두 종류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이론이다. 최근에는 인지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해석수준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Dhar and Kim, 2007). Trope와 Liberman의 해석수준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자신과 현재, 이곳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반으로 대상을 다르게 표상하고 이러한 차이가 해석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이다. 즉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은 구체적으로 표상하고, 심리적으로 먼 대상은 추상적으로 표상하게 된다. 해석수준은 크게 상위해석수준(high level construal)과 하위해석수준(low level construal)으로 구분된다. 심리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상위수준 해석을 하고 추상적이고 결과 중심적이며, 본질적인 속성, 행동에 대한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위수준 해석을 하며 구체적이고 과정 중심적이며 주변적 속성, 행동에 대한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의 차이는 사람들의 선택, 평가, 인식, 범주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Trope and Liberman, 2003; Trope, Liberman and Wakslak, 2007; Trope and Liberman, 20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rope와 Liberman(2010)에 의하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오직 현재, 여기, 자신이므로 과거나 미래, 다른 공간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추상적인 정신적

해석을 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예측하고,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예측, 기억, 추측은 모두 직접적인 경험과는 구별되는 정신적 해석을 거치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사람마다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심리적 거리가 발생하게 된다. 서로 다른 심리적 거리로 인하여 같은 대상일지라도 해석수준의 차이가 생긴다. 심리적 거리는 증가할수록 해석은 더 추상적이 되고 추상수준이 증가한다. 해석수준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해석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어떤 추상적 수준에서 생각하게 된다 (Burgoon, Henderwon and Markman, 2013). 이는 더 추상적일 수 있고 혹은 덜 추상적일 수 있다(<표 2-5> 참고). 추상화의 낮은 수준(즉, 높은 수준의 구체성)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특성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생생한 그리고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 반면 높은 추상화 수준(즉, 낮은 수준의 구체성)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을 덜 포함하고, 적은 이미지를 형성한다. 더 추상적일수록 부수적인 특성에는 적은 무게를 두고 식별하는데 필요한 중심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에 주목한다. 사람들은 현재의 사물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 대한 판단과 판단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중심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이 점점 더 심리적으로 멀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생각하게 된다.

<표 2-5> 추상적 수준의 예

대상	추상적인 표현	훨씬 더 추상적인 표현
사과	과일	영양
존	남자	사람
키스	애정표현	사랑
10\$ 기부	베풀다	이타주의
레버를 누르기	투표권 행사	선거에 영향을 줌

Burgoon et al., "There Are Many Ways to See the Forest for the Trees A Tour Guide for Abstrac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8, No. 5, 2013, 503.

상위 수준 해석은 하위 수준 해석과 비교하여 더 추상적이고, 일관적이고 상위목표를 묘사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구체적 표현보다 간략하고, 덜 애매모호하고, 더 일관성 있고, 더 도식적이며 더 모범적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연락(contact a friend)”은 상위 수준 해석이고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낸다(send her an e-mail)” 라는 구체적 표현은 하위 수준 해석이다. 상위 수준 해석은 행동이 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중심속성을 포함하고 상위목표를 갖는다(Trope and Liberman, 2010). Trope과 Liberman(2000)은 하나의 실험에서 시계가 달린 라디오를 구매하는 시점을 1년 후의 먼 미래와 1일후인 가까운 미래로 달리하여 실험을 한 결과 먼 미래에는 중심속성인 라디오의 품질을 중요하게 여겼고, 가까운 미래에는 라디오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시계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선택하였다(Trope and Liberman, 2000).

해석수준이론의 심리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공간적 거리, 가상적 거리를 포함한다. 그 중 시간적 거리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대상에 대한 평가나 구매결정 등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해석수준이론의 많은 연구들은 시간적 거리가 가깝고 먼 것에 따른 대상에 대한 해석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Trope과 Liberman(2010)은 시간적 거리에 따라 중심속성과 주변적 속성의 중요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심속성으로서의 업무는 흥미로우나 주변적 속성으로서의 교육이 지루한 상황과 업무는 지루하지만 교육이 흥미로운 경우에 피험자들이 시간적 거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는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내렸지만,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는 업무가 흥미롭고 교육이 지루한 상황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먼 미래 시점일수록 중심속성에 비중이 높았다.

Trope과 Liberman(2003)은 시간적 거리와 관련한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미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가까운 미래는 실제 사건에 포함된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표현하고 먼 미래로 사건이 예상될 때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인지 구조가 활성화되어 구조화되고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하나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캠핑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38개의 항목을 범주화(category) 하도록 하였는데 가까운 미래 상황보다 먼 미래 상황을 상상할 때 더 적은 수로 범주화했다. 또

한 참가자들에게 숙제를 하고, 뉴스를 보는 등의 25개의 일상 활동 및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가까운 미래의 선호도는 더 복잡하고 먼 미래의 선호도는 더 간단하게 평가하였다(Trope and Liberman, 2003).

해석수준 이론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인 행동의 바람직성(desirability)의 영향이 증가하고,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낮은 수준인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영향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나 사건의 평가가 달라진다. Liberman과 Trope(1998)은 행동의 목적으로서 바람직성,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행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두 가지 특강이 있는데 A특강은 특강강사와 주제(바람직성)가 좋고, B특강은 특강장소와 시간(실행가능성)이 좋다. 참가자들에게 참석여부에 대하여 가까운 미래의 특강과 먼 미래의 특강일 때 두 가지 특강 중 하나를 정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가까운 미래에는 실행가능성에 가중치를 두었고, 먼 미래에는 바람직함에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석수준 이론과 일치되는 결과로 바람직성이 높고 실행가능성이 낮은 대안은 먼 미래일수록 매력도가 증가하고, 결과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가까운 미래일수록 매력도가 증가한다.

이경은 등(2016)은 시간적 거리와 시간관이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 목표지향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포토에세이와 수강신청의 선택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서는 실행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고 먼 미래에는 바람직성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였다. 목표지향성과의 관계에서는 목표지향성이 낮은 포토에세이 선택상황에서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미래지향적 시간관 모두 시간적 거리에 따른 선호역전이 컸으며, 현재쾌락적 시간관이 높은 집단일수록 시간적 거리에 따른 선호역전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집단은 목표지향성이 높은 수강신청 선택상황에서 시간거리에 따른 선호역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된 기존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실험자극
이지은, 유동호(2011)	가격할인시 할인 기간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바지, 전자사전
이병관(2011)	소비자의 정신적 조작과 시간적 거리감이 비교 광고에서 제품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MP3, 노트북
양윤, 김민혜(2012)	해석수준, 메시지유형, 시간적거리가 메시지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커피머신 광고메시지
양윤, 강은희(2012)	시간지연, 해석수준, 제품유형이 소비자의 제품선호에 미치는 영향	노트북, 카메라
강지현, 황선진, 여준상(2012)	해석수준과 원시안이 보상물 선호에 미치는 영향	현금할인, 주유권, 상품권, 영화관람권
김경호, 하영원, 전성률(2013)	시간적거리가 소비자의 타협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품 속성의 특성과 마음가짐(mind-set)을 중심으로	TV, 아이폰4, 노트북, 외장하드
강수영, 김효진(2015)	시간한정 메시지의 시간적거리, 충동구매성향, 조절초점 메시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류
김윤희(2015)	모바일 광고소구유형과 시간적 거리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제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	치약, 반지, 운동화
조운용(2016)	친환경제품의 광고 메시지 지향성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적 자기 의식 수준과 시간적 거리감의 조절 변수 효과를 중심으로	휴대용음료컵(텀블러)
곽재필, 전홍식(2016)	사회적기업의 제품 편익 프레이밍과 공익 활동의 시간적 거리가 광고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락 판매
이윤주(2016)	가격 정보 제시 방법, 비교 메시지, 시간적 거리감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암보험가입

강현모와 민동원(2010)은 구매시기와 소비시기간의 시간 간격이 멀고 가까움에 따른 바람직성 및 실행가능성 관련 구매대안에 대한 평가(구매의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해석수준 이론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인 행동의 바람직성(desirability)의 영향이 증가하고,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낮은 수준인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영향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나 사건의 평가가 달라진다. 이러한 해석수준이론을 바탕으로 피험자에게 구매상황을 온라인상에서 서적을 구매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상상하게 하였다. 바람직성이 높은 대안은 전공과 관련된 서적을 제시하였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소설을 제시하여 제품의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구매시기와 소비시기간의 시간간격과 구매대안의 유형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소비할 시간이 먼 미래일수록 바람직성이 높은 대안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졌다. 제품유형이 다를 때 소비자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해석수준이 달라지고, 그 결과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달가능성(Reachability)과 관련하여 Nunes와 Drèze(2006)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외부보상으로 제공된 인위적 첨가물(Artificial Advancement)로 인하여 자신이 목표를 향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대한 노력이 증가하고 완료시간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특별한 보상을 위해 8번의 구매가 필요한 프로그램과 10번의 구매가 필요하지만 이미 두 번의 구매는 등록되어진 프로그램이 있다. 두 개의 프로그램 모두 앞으로 8번의 구매가 필요하고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지만 고객들은 이미 두 번이 등록되어진 두 번째 프로그램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보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프레이밍 되는 것이 사람들이 작업을 완료할 노력을 더 하게 하고, 또한 이미 부여된 과정에 의해 제공된 초기 탄력이 각 단계를 밟아감에 따라 도달가능성이 커져 목표를 향한 노력이 증가되는 것이다.

Witt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와 같은 숙련된 행동에 종사할 때 사람들은 시각적인 정보를 자신의 행동과 관련시키고 능력은 행동의 대상을 인식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크기에 대한 인식은 능력에 영향을 받아 잘하는 소프트볼 선수가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공을 더 크게 인식하는 등 사람들은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다(Witt and Proffitt,

2005). Witt et al.(2008)는 골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가 끝난 후 홀의 크기를 추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그들이 그날 경기를 잘 했는지의 실적정보를 수집하여 실적과 그들이 인식한 홀의 크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날 잘한 선수들은 홀의 크기를 더 크게 인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행동 능력은 대부분 사람의 신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신체의 변화는 육체적 능력과 지각 모두에 영향을 준다. 한 세트의 실험에서 도구의 사용을 통해 참가자의 몸의 크기(사용할 수 있는 몸의 길이)가 조정되었다. 대상 표적은 팔의 범위를 넘어서 제시되었지만 참가자가 도구를 들고 도달 할 때 접근할 수 있었다. 참가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뻗어야 하는 경우보다 도구를 사용하여 접근하려고 했을 때 목표를 더 가깝다고 인식하였다. 비슷하게 언덕을 오르는 사람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오르면 더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언덕은 더 가파르고 힘들게 보인다. 가벼운 공을 든 사람보다 무거운 공을 든 사람이 목표가 자신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 시각적 거리는 동일하지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즉 능력에 따라서 대상을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지각자의 능력이 향상되면 표적이 더욱 가깝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어깨가 좁은 사람은 어깨가 넓은 사람보다 좁은 출입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좁은 어깨를 지닌 지각자는 넓은 어깨를 지닌 지각자와 비교하여 출입구를 더 넓게 인식한다(Stefanucci and Geuss, 2009). 요약하면 더 가까이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인식하고, 목표물까지 걸어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야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더 먼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환경을 다르게 지각하고, 인식정도에 따라 대상을 달리 본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상황을 인식할수록 도달가능성이 크다고 느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Linkenauger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리가 자신의 신체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물건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달가능성”이 제한될 때 물체와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사용하여 도구를 잡기 쉽거나(오른손 잡이의 경우는 오른손을 이용할 때) 도구를 잡기 어려운 경우(오른손 잡이의 경우는 왼손을 이용할 때) 도구와의 거리를 추정하였다. 피험자들은 도구를 잡기 도구를 잡기 어려울 때 도구와의 거리를 더 먼 것으로 인식했다.

즉 도달가능성이 크면 물체와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고 도달가능성이 제한될 때 물체와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Hansen과 Trope(2012)은 시간 경험은 매우 주관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똑같은 상황도 매우 빠르게 혹은 매우 느리게 지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는 상황의 매력, 풍요로움, 음악, 혹은 약물 과 같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존한다. 이 연구는 추상적인 혹은 구체적인 해석수준이 시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이 효과를 중재하는지를 실험하였다. 저자는 세 가지 실험에서 구체적 마인드셋에 있는 참가자들이 추상적 마인드셋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의 실험은 BIF의 25가지 문항으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해석수준을 측정하고, BIF가 설문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반복적으로 3번, 30초마다(30초가 흘렀다고 느낄 때) 타이머를 정지하라고 요청받는다. 실험결과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는 참가자가 시간을 더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예를 들어 실제 35초가 지났지만 20초만 경과했다는 인식).

Bashir et al.(2014)은 주관적으로 시간을 가까운 것으로 경험할 때 먼 미래의 목표이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목표추구를 위해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먼 미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행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시간적으로 멀다고 느껴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Bashir et al.(2014)은 두 번의 연구에서, 그들이 주관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경험할 때, 먼 미래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더 동기화되는지를 실험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009)은 기후 변화가 진행된다면 "금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0.5m에서 2m 사이로 상승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환경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기후 변화 방지"와 같은 목표를 고려할 때, 개인은 저수준 (예 : 지속 가능한 음료 용기 구매) 또는 높은 수준 (예 : 환경 보호) 목표를 표현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표현이 구체적이고 목표 추구의 메커니즘을 전달하는 반면, 높은 수준의 표현은 추상적이며 목표의 본질을 전달한다(Liberman and Trope, 1998; Vallacher and Wegner, 1987). 구체적인 구문은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표를 해석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예상되는 목표 지향적 행동, 덜 지연된 행동 및 조기 목표 완료로 이어진다(Gollwitzer and Brandstatter, 1997; Gollwitzer and Sheeran,

2006; McCrea et al., 2008).

그러나 해석수준이론에서는 객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목표를 덜 구체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03, 2010). 따라서 과거의 연구는 객관적으로 먼 목표가 종종 행동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먼 미래의 목표가 일시적으로 더 가깝게 보인다면, 개인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석 할 수 있고 따라서 오늘날 그것을 추구 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즉 기존의 해석수준이론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해석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목표추구를 위해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 미래의 목표를 바라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 가설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발생하는 의사결정 차이는 남녀가 가지고 있는 해석수준과 추상적 사고수준이 다를 것을 고려하였다. 사람들의 추상적 사고수준은 의사결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다르다고 예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추상적 사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거리의 주관적 인식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추상적 사고수준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해석수준이론의 추상적 사고와 구체적 사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행동정체성이론의 추상적 사고수준으로 행동정체성 척도(BIF)를 사용하여 추상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다. 행동정체성이론에서는 추상적 사고수준은 개인의 해석수준에 따라 다르며,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할 때 개인의 해석수준에 의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 추상적 사고수준과 성별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총 세 번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독립변인으로서 추상적 사고수준(BIF HIGH/ BIF LOW)과 조절변수로서 성별(남/여), 종속변수로서 정보보안 선호도, 소비자행동, 시간적 거리(1년후/ 2주후)의 주관적 인식, 수강신청의도를 각 실험의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사람들의 의사결정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해석수준과 추상적 사고수준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소비자 선호에서 성별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 남자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여자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해석수준이론의 연구에서는 해석수준과 메시지 수준이 일치 할 때 선호도가 증가한다(Eyal and Liberman, 2004; Kim et al., 2009; 양윤, 김민혜, 2012). 즉, '왜(Why)'와 관련된 메시지는 상위수준해석으로 추상적이고 바람직함에 초점을 두는 반면 '어떻게(How)'와 관련된 메시지는 하위수준해석으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남녀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남자는 주변시야가 좁고 여자는 주변시야가 넓다. 이러한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자아해석의 남녀차이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추상적 사고수준의 남녀 차이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추상적 사고의 영향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구체적 사고의 영향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남자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선호가 높고, 구체적 사고수준이 높은 여자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여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추상적 사고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의사결정 차이가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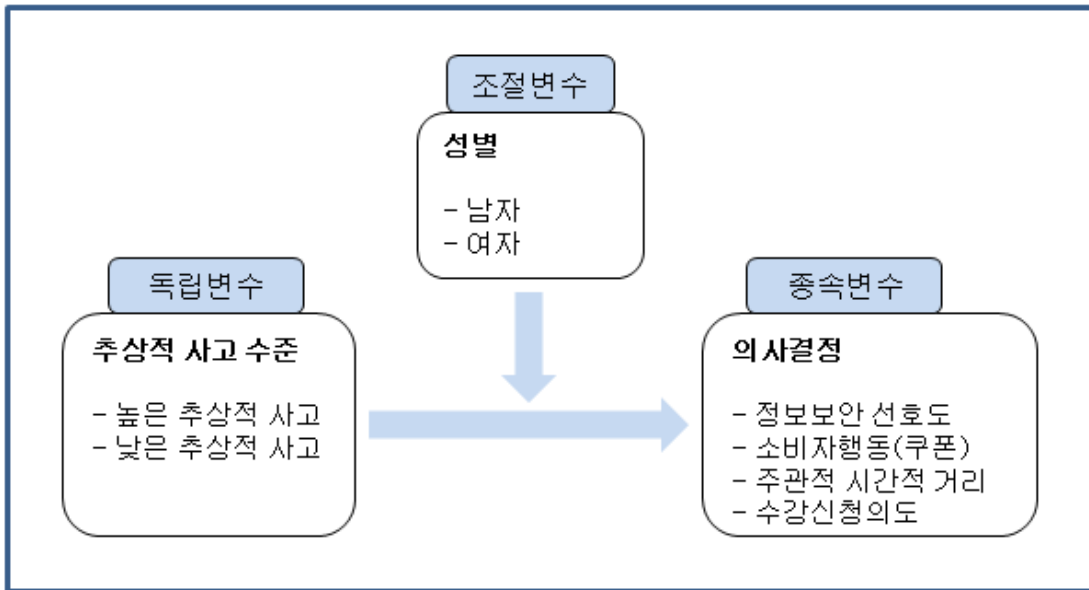
연구가설 2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수록 가까운 대상은 더욱 구체적으로, 먼 대상은 더욱 추상적으로 보는 능력이 강하여 의사결정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여 설정하였다.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소비자는 먼 미래를 볼 때는 우리가 숲을 보거나 망원경을 통해 대상을 볼 때처럼 거시적인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이라 예상했다(줌아웃 효과, Zoom-out). 가까운 미래에서는 가까운 나무를 보거나 돋보기를 통해 대상을 볼 때처럼 미시적 관점으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구체적, 부분적, 개별적으로 분석한다고 예상했다(줌인 효과, Zoom-in). 즉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은 가까운 미래는 더 가까이 보고 먼 미래는 더 멀리 내다보는 줌인-줌아웃(Zoom-in Zoom-out) 현상이 강하다.

연구가설 3. 추상적 사고수준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의사결정 차이가 클 것이다.

Freitas, Gollwitzer와 Trope(2004)의 해석수준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먼 미래로 갈수록 구체적 사고수준보다 추상적 사고수준이 증가하여 사건의 실행가능성보다 바람직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선행연구에 의하면, 추상적 사고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창의력이 신장되고 사건의 바람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윤, 이경은, 현정석, 2013; Trope and Liberman, 2003). 기존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추상적 사고 수준이 증가할 때 바람직성 및 창의성, 문제해결력이 향상되는데 본 연구가설 3은 이러한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고자 설정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독립적 자아해석이 강한 남자는 원거리적 시각을 가지고 보다 추상적이고 상위수준의 해석을 할 것이며,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강한 여자는 근거리적 시각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하위수준의 해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추상적 사고수준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남자는 상대적으로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 때 먼 미래는 더 멀리, 가까운 미래는 더 가까이 인식하는 줌인-줌아웃 현상이 강하고 의사결정의 차이가 클 것이라 예상하였다. 반면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먼 미래는 더 멀리, 가까운 미래는 더 가까이 인식하는 줌인-줌아웃 현상이 강하여 의사결정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림3-1> 연구모형



제 4 장 정보보안 선호도 차이(연구 1)

연구 1에서는 추상적 사고수준과 성별이 정보보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구가설 1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해석수준이론에 의하면 상위수준 해석은 추상적이고 결과 중심적이며, 본질적인 속성, 행동에 대한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 하위수준 해석은 구체적이고 과정 중심적이며 주변적 속성, 행동에 대한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 1에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해석수준의 성별차이가 발생하고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다름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사고수준과 일치하는 대상을 선호할 것이라 예상하여 추상적인 캡차와 구체적인 캡차에 대한 정보보안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캡차(CAPTCHA)는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Hernandez-Castro and Ribagorda, 2010).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터넷의 존재에 크게 의존한다. 그 결과 인터넷 정보보안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보안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캡차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Wang et al., 2014). 캡차는 컴퓨터는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변형된 글자 및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온라인상에서 사용자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해주는 보안기술이다. 글자를 변형시켜 사용되는 텍스트 기반 캡차를 시작으로 이미지를 활용하는 캡차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용자의 온라인 사이트 가입, 게시물 등록, 스팸 메일의 차단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Hernandez-Castro and Ribagorda, 2010; 강전일 등, 2008; 김재환 등, 2015).

정보보안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캡차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준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리캡차(reCAPTCHA)는 글자 캡차로서 캡차에 사용되는 문자는 종이책(고문서)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문자를 사용한다. 오프라인의 책을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스캔하게 되지만 손으로 쓰였거나 오래되어 낡고 색이바랜 경우 컴퓨터가 스캔된 글자를 읽어내지 못한다. 이런 글자가 포함된 고문서들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확인하여 입

력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글자를 캡처에 사용한 것이 리캡처라는 보안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정보보안 과정에서 글자 캡처를 입력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결과는 디지털 과정에 반영되어 고문서가 디지털 파일로 변환되는 과정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리캡처를 통해 매일 약 1억개의 문자가 디지털화되고 연간 250만권의 책이 복원된다. 또한 최근 사용되고 있는 그림 캡처는 구글의 도로 카메라에 찍힌 표지판이나 건물등이다. 카메라가 찍은 화면은 흐릿하여 컴퓨터가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 로그인 과정에서 정보보안을 위하여 해당 그림을 찾고 입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로 표지판이나 흐릿한 건물들이 판독되어 구글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위키백과).

하지만 이러한 캡처의 정보보안 및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따라서 캡처를 입력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행동을 높이고 사용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위한 캡처의 유형에 따른 선호차이를 살펴보았다.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실험 연구 설계

100명의 J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실험을 실시하였다. 2(성별: 남 vs. 여) × 2(사고수준: BIF HIGH vs. BIF LOW) × 2(캡처유형: 글자(Text)기반 캡처 vs. 그림(Image)기반 캡처) 실험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제시된 캡처의 유형에 따른 선호 차이를 조사하였다.

<표 4-1> 설문항목 구성

구성	항목	인용
성별	성별체크(남 vs 여)	
사고수준	행동정체성척도(BIF)	Vallacher and Wegner(1987)의 행동정체성 척도 - 25가지의 추상적 문항과 구체적 문항으로 설문
캡차유형	선호도체크	Hernandez-Castro and Ribagorda, 2010, 변제성 외(2012), 강전일 외 (2008) : 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로 분류

설문지는 소비자의 성별, 소비자의 사고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정체성척도와 제시된 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의 편의성, 적절성, 응답자의 성향, 인구 통계적 자료를 얻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4-1>). 정보보안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캡차가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그림 4-1>의 글자 캡차와 <그림 4-2>의 그림 캡차를 보여주고 직접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설문지에서 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의 순서는 랜덤으로 하였다.

캡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글자(Text)기반 캡차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캡차로서 글자를 기울이거나 잡음을 넣는 등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그림(Image)기반 캡차는 그림 이미지를 출력하여 해당되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판독해내기 어렵다(Hernandez-Castro and Ribagorda, 2010; 변제성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캡차에 대한 선호도가 성별 및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차이를 주목하고 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의 보안성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수록 그림 캡차에 대한 정보보안 선호도가 높고,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을수록 글자 캡차에 대한 정보보안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기존 성별차이에 따른 교육용 게임 디자인에 관한 연구(장혜정 등, 2011)에서 남자는 높은 공간 지각 능력 및 시각적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물과 활동 위주의 학습이 효과적이며, 여자는 언어능력 및 공감 능력이 높음을 고려하여 튜트

리얼 시스템을 활용하고 상상력을 높일 수 있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 학습 방식을 고려해야하는 등 성별차이에 따른 효과적이 학습방법이 다르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별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추상적 사고수준의 차이로 보았다.

<그림 4-1> 설문지에 사용된 글자 캡차



<그림 4-2> 설문지에 사용된 그림 캡차



2) 변수의 조작정의와 측정

(1) 독립변수

- 추상적 사고수준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사고수준은 Vallacher와 Wegner(1987, 1989)의 행동정체성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행동정체성 이론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해석수준에 의해 대상을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해석수준에 따라 의사결정 및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모든 행동은 어떻게(how)라는 행동으로 수행되는 낮은 수준의 정체성부터 왜(why)라는 행동으로 수행되는 높은 수준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읽기’라는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인쇄물의 줄 따라 내려가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는 ‘지식 얻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Vallacher와 Wegner(1989)의 행동정체성척도를 사용하였고 행동정체성척도(이하 BIF)는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는 행동과 행동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과 추상적 표현이 있으며 행동의 추상적 표현을 선택한 문항이 많을수록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다. 추상적 표현을 선택한 문항을 1점으로 하여 BIF점수를 계산하면 최소 0점에서 최고 25점이 되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BIF점수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BIF점수의 중위값이 12로 나타났고 BIF점수가 12보다 높으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HIGH), BIF점수가 12보다 낮으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LOW)으로 분류하였다(<표 4-2>).

<표 4-2>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집단 분포

성별	추상적 사고수준	N
남	BIF LOW	21
	BIF HIGH	31
여	BIF LOW	32
	BIF HIGH	16

(2) 조절변수

- 성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 하였고, 성별 집단 분포는 남자는 52명, 여자는 48명이다.

(3) 종속변수

- 정보보안을 위한 캡차 선호

종속변수인 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의 추상성이 의도한 대로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문항에 조작 점검 문항을 포함시켰다. 캡차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2개 문항(“이 캡차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캡차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의 9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9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4-3> 조작 점검을 위한 설문의 구성-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

구분	문항내용	척도
글자캡차	이 캡차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리커트 9점척도
그림캡차	이 캡차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를 더욱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Preston과 Colman(2000)은 응답 범주의 수에 따른 신뢰성에 대하여 7~10개의 응답범주가 있는 척도가 신뢰도 계수가 높으며 <표 4-4>에서 보는 것과 같이 7점 척도와 9점 척도 사이에는 신뢰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 범주의 수에 따른 평가척도의 신뢰성

	응답범주										
	2	3	4	5	6	7	8	9	10	11	101
Test-retest Reliability	0.88	0.86	0.89	0.91	0.92	0.93	0.94	0.94	0.93	0.92	0.90
Cronbach's α	0.81	0.79	0.82	0.82	0.83	0.85	0.85	0.85	0.85	0.86	0.85

Preston, Carolyn C., and Andrew M. Colman., "Optimal Number of Response Categories in Rating Scales: Reliability, Validity, Discriminating Power, and Respondent Preferences," *Acta Psychologica*, Vol. 104, No. 1, 2000, 5.

조작 점검 문항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설문 문항들에 t-검증을 실시하였다. 캡차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설문문항 “이 캡차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에 대하여 글자 캡차에 대한 응답은 4.20(SD=2.09)이고 그림 캡차에 대한 응답이 5.34(SD=2.28)로 높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200) = -3.687, p < .001$). 두 번째 설문문항 “이 캡차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에 대하여 글자 캡차에 대한 응답은 5.88(SD=1.93)이고 그림 캡차에 대한 응답 5.31(SD=2.00)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200) = 2.049, p = .042$). 즉 그림 캡차는 추상적으로, 글자 캡차는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캡차에 대한 종속변수는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다(<표 4-5>).

<표 4-5> 캡차의 조작점검 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글자 캡차 (n=100)	그림 캡차 (n=100)		
이 캡차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4.20(2.09)	5.34(2.28)	-3.687	.000*
이 캡차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5.88(1.93)	5.31(2.00)	2.049	.042*

2. 연구결과

1) 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 1. 소비자 선호에서 성별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 남자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여자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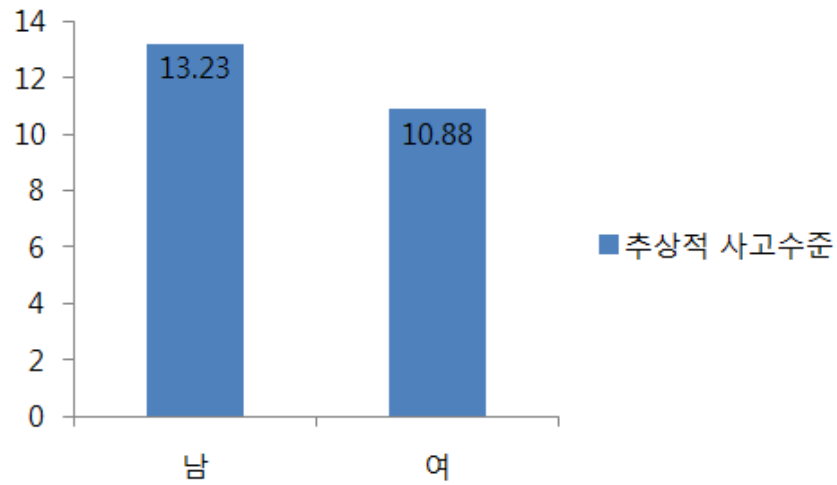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4-6>과 <그림 4-3>에서 보듯이, 남자의 추상적 사고점수 13.23(SD=5.07)가 여자의 추상적 사고점수 10.88(SD=4.27)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100) = 2.501, p = .014$).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BIF점수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응답자의 BIF점수 중위값은 12였고 BIF점수가 12보다 높은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 BIF점수가 12보다 낮은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4-6>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에 대한 T-Test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남 (n=52)	여 (n=48)		
추상적 사고 점수	13.23(5.07)	10.88(4.27)	2.501	.014*

* $p < .05$

<그림 4-3>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



성별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를 위한 설문 문항은 “두 가지 캡차 중 어느 것이 정보보안에 적절할까요?”라는 질문으로 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표 4-7>에서 보듯이, 남자는 그림 캡차에 대한 선호도(빈도=34)가 글자 캡차에 대한 선호도(빈도=18)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그림 캡차에 대한 선호도(빈도=15)보다 글자 캡차에 대한 선호도(빈도=33)가 높게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001로 나타나 성별과 정보보안 선호도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7>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구분		성별		x ² 값	p값	
		남	여			
정보보안 선호도	글자 캡차	빈도(%)	18(18%)	33(33%)	11.638	.001*
		기대빈도	26.5	24.5		
	그림 캡차	빈도(%)	34(34%)	15(15%)		
		기대빈도	25.5	23.5		

* $p < .01$.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이 다르고, 정보보안 선호도에 성별차이가 발생하였다. 다음은 추상적 사고수준과 성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설문지 하나에 글자 캡차와 그림 캡차에 대한 설문을 동시에 실시하였기에 의사결정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고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만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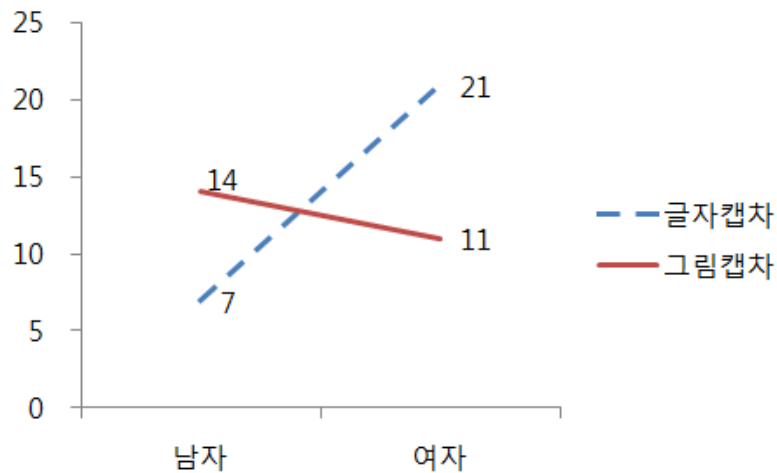
분석 결과,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표 4-8>과 <그림 4-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자는 그림 캡차(빈도=14)가 글자 캡차(빈도=7)보다 선호도가 더 높고, 여자는 글자 캡차(빈도=21)가 그림 캡차(빈도=11)보다 선호도가 더 높았다. 유의확률은 0.027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8>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구분		성별		χ^2 값	p값	
		남	여			
정보보안 선호도	글자 캡차	빈도(%)	7(13.21%)	21(39.62%)	5.306	.027*
		기대빈도	11.09	16.91		
	그림 캡차	빈도(%)	14(26.42%)	11(20.75%)		
		기대빈도	9.91	15.09		

* $p < .05$.

<그림 4-4>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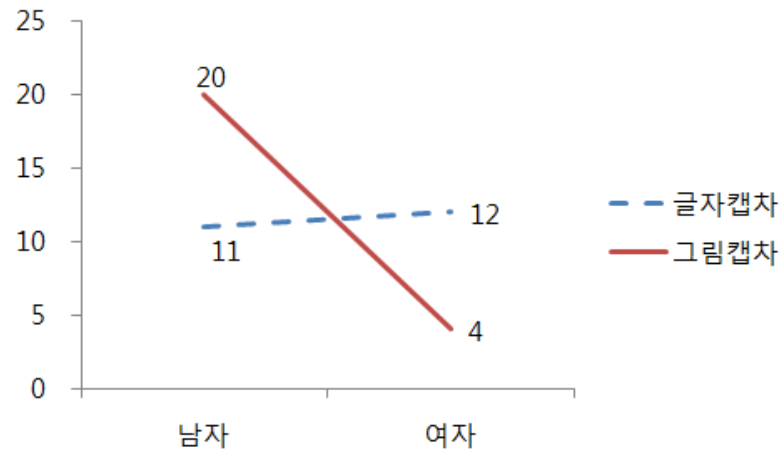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표 4-9>와 <그림 4-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자는 그림 캡차(빈도=20)가 글자 캡차(빈도=11)보다 선호도가 높고 여자는 글자 캡차(빈도=12)가 그림 캡차(빈도=4)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015로 나타났다. 즉 추상적 사고수준과 정보보안 선호도의 영향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남자는 그림 캡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여자는 글자 캡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가설 1>이 채택되었다.

<표 4-9>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구분	성별		χ ² 값	p값		
	남	여				
정보보안 선호도	글자 캡차	빈도(%)	11(23.40%)	12(25.53%)	6.595	.015*
		기대빈도	15.17	7.83		
	그림 캡차	빈도(%)	20(42.55%)	4(8.51%)		
		기대빈도	15.83	8.17		

* $p < .05$.

<그림 4-5>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



2) 결과논의

연구 1에서는 성별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다르고 따라서 추상적인 캡차와 구체적인 캡차에 대한 정보보안 선호도에서 성별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남자는 여자보다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추상성이 높은 그림 캡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구체성이 높은 글자 캡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추상적 사고수준과 성별이 정보보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남자는 그림 캡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여자는 글자 캡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가설1 채택).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정보화된 개인정보의 유출 및 계정침해에 따른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영석, 2003). 캡차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개인의 계정을 침해하여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다(강전일, 2012). 정보보안을 위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캡차이지만 흐릿한 글씨나 그림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보안 행동을 높이고 사용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성별 및 추상적 사고를 고려한 캡차의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5 장 소비자 행동의 차이(연구 2)

연구 2는 추상적 사고수준과 남녀 간의 해석수준 차이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간적 거리의 주관적 인식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을 검증하여 추상적 사고 수준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2>와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보상프로그램의 하나인 쿠폰의 유형과 시간적 거리에 따른 소비자 행동이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실험 연구 설계

102명의 J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실험을 실시하였다. 2(성별: 남 vs. 여) × 2(사고수준: BIF HIGH vs. BIF LOW) × 2(쿠폰유형: 쿠폰 A(10개 중 4개 스탬프) vs. 쿠폰 B(7개 중 1개 스탬프)) 집단 간 실험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쿠폰 매력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소비자의 성별, 소비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정체성척도 설문문항, 제시된 커피숍의 쿠폰 매력도, 응답자의 성향, 인구 통계적 자료를 얻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한 설문지는 쿠폰유형(쿠폰 A(10개 중 4개 스탬프) vs. 쿠폰 B(7개 중 1개 스탬프))을 달리한 총 2종류로서 피험자들은 이 가운데 한 종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표 5-1>, 조건별 집단 분포는 <표 5-2>와 같다.

<표 5-1> 설문항목 구성

구성	항목	인용
성별	성별체크(남 vs 여)	
사고수준	행동정체성척도(BIF)	Vallacher and Wegner(1987)의 행동정체성 척도 - 25가지의 추상적 문항과 구체적 문항으로 설문
쿠폰유형	쿠폰A, 쿠폰 B	Nunes and Drèze(2006)의 무료 세차 쿠폰 과제 실험

<표 5-2> 실험 조건별 최종 피험자 수

성별	추상적 사고수준	쿠폰유형		인원 (명)
		쿠폰A (10개 중 4개 스탬프)	쿠폰B (7개 중 1개 스탬프)	
남	BIF HIGH	17	8	25
	BIF LOW	17	7	24
여	BIF HIGH	8	8	16
	BIF LOW	21	16	37
합계		63	39	102

보상프로그램은 물건을 구매하는 대가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객관계관리의 일환이다(강지현 외, 2012). 소비자는 종종 특정 외부 보상을 동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무료 비행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특정 항공사의 지속적인 구매로 움직일 수 있다(Nunes and Drèze,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쿠폰 시나리오는 Nunes and Drèze(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무료 세차 쿠폰 실험과 같이 쿠폰에 찍힌 스탬프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쿠폰 매력도와 쿠폰을 모두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려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먼저 커피숍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그림 5-1>의 쿠폰 A와 B 둘 중 하나를 제시하였다. 쿠폰 A는 10개 중 4개의 스탬프가 이미 찍혀 있고, 쿠폰 B는 7개 중 1개가 찍혀 있어 두 쿠폰 모두 앞으로 6개의 스탬프를 더 찍으면 음료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쿠폰A와 B의 차이는, 두 개의 쿠폰 모두 동일하게 앞으로 6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되지만, 10개 중 4개의 스탬프가 찍혀있는 쿠폰 A를 받은 소비자는 이미 찍혀있는 스탬프 4개 때문에 10개 완성이라는 목표가 곧 보인다고 생각하여 쿠폰B를 받은 소비자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림 5-1> 설문지에 사용된 쿠폰A와 쿠폰B



(쿠폰A)

(쿠폰B)

2) 변수의 조작정의와 측정

(1) 독립변수

- 추상적 사고수준

추상적 사고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동정체성척도(BIF)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해석수준을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과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응답자의 BIF점수의 중위값은 12였고 중위값(BIF점수 12)을 기준으로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HIGH)과 낮은 집단(LOW)으로 구분하였으며 사고수준별 집단 분포는 <표 5-3>과 같다

<표 5-3>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집단 분포

성별	추상적사고수준	N
남	BIF LOW	24
	BIF HIGH	25
여	BIF LOW	37
	BIF HIGH	16

(2) 조절변수

- 성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 하였고, 성별 집단 분포는 남자는 49명, 여자는 53명이다.

(3) 종속변수

- 쿠폰매력도

쿠폰매력도를 위한 설문은 총 7개의 문항으로 쿠폰이 매력이 있는지, 쿠폰을 완성할 것인지 등을 9점 척도로 물었다. 7개 문항에 대한 설명된 총 분산은 63.24%, Kaiser-Meyer-Olkin (KMO) 값이 .85, Cronbach α 값은 0.90으로 타당도 및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연구결과

1) 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 2.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추상적 사고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의사결정 차이가 클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상적 사고수준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상적 사고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쿠폰A와 쿠폰B의 쿠폰매력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5-4>에서 보듯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BIF LOW)은 쿠폰 A에 대한 쿠폰매력도 5.29(SD=1.79)가 쿠폰 B에 대한 쿠폰매력도 4.75(SD=1.1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02)=1.636, p = .206$).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BIF HIGH)은 쿠폰 A에 대한 쿠폰매력도 5.33(SD=1.26)으로 쿠폰 B에 대한 쿠폰매력도 4.38(SD=1.84)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102)=3.877, p = .056$). 추상적 사고가 높은 집단에서만 쿠폰 유형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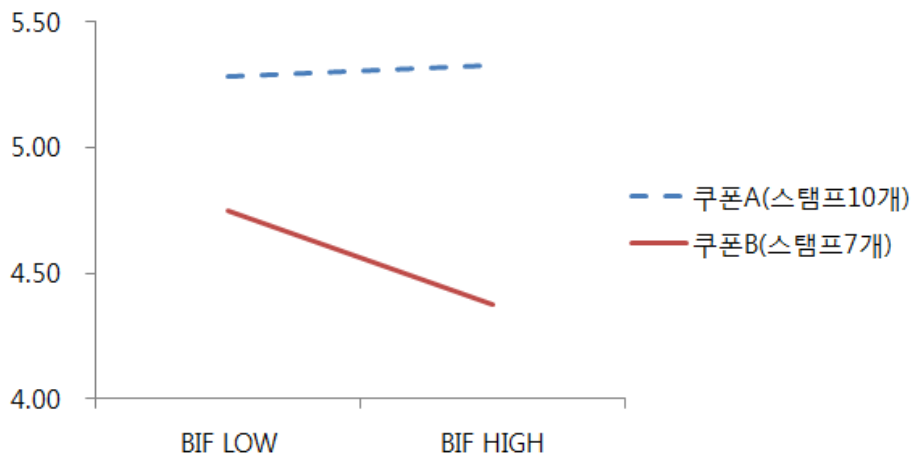
른 쿠폰매력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가 채택되었다.

<표 5-4>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평균 및 T-Test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쿠폰A 스탬프10개 (n=63)	쿠폰B 스탬프7개 (n=39)		
쿠폰매력도	BIF LOW (n=61)	5.29(1.79)	1.636	.206
	BIF HIGH (n=41)	5.33(1.26)	3.877	.056*

* $p < .1$.

<그림 5-2>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사회적 행동에서의 많은 성별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자아해석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susan,1997). 본 논문에서는 성별에 따라 소비자 행동이 다르며, 소비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수준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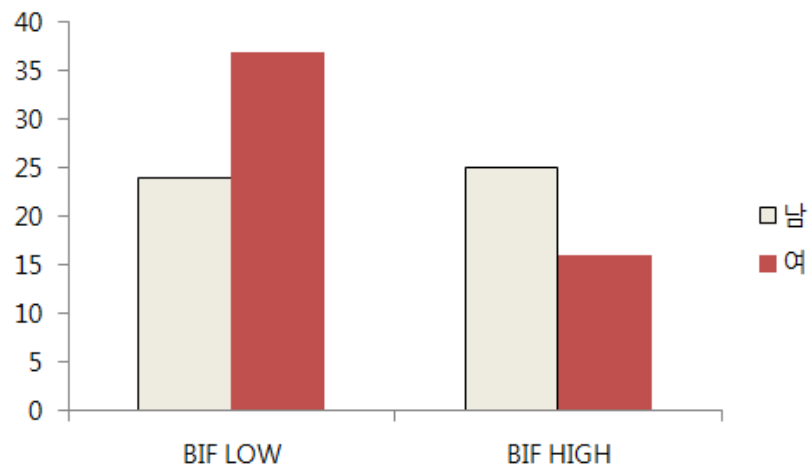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의사결정에서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을 살펴보았다. 추상적 사고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

에 사용된 행동정체성척도를 통한 추상적 사고점수를 구하고 중위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추상적 사고점수의 중위값은 12이고, 남자의 추상적 사고점수는 12.55, 여자의 추상적 사고점수는 11.55였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12점 이상인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12점 미만인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표5-5>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른 사고수준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한 결과, 카이제곱 값은 4.596이고 유의확률이 0.026으로 나타나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의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5>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구분		성별		x ² /p	
		남	여		
추상적사고 (BIF수준)	BIF LOW	빈도(%)	24(23.5)	37(36.3)	4.596/ .026*
		기대빈도	29.3	31.7	
	BIF HIGH	빈도(%)	25(24.5)	16(15.7)	
		기대빈도	19.7	21.3	

<그림 5-3>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



연구가설 3. 추상적 사고 수준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여자는 추상적 사고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의사결정 차이가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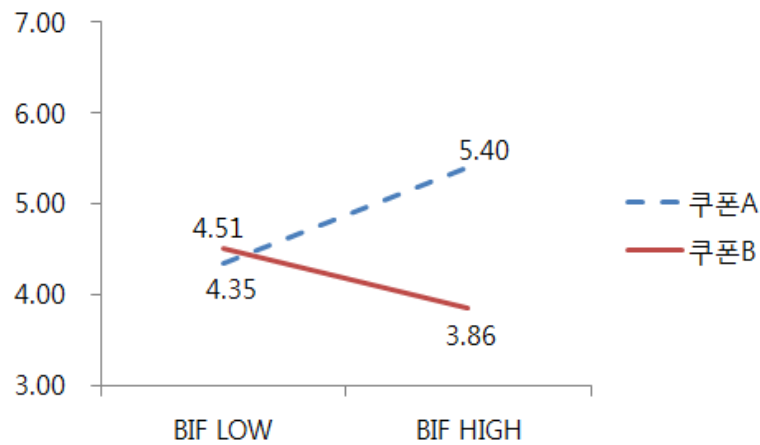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 집단을 분류하여 추상적 사고수준과 쿠폰유형(A와 B)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쿠폰A와 쿠폰B의 쿠폰 매력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남자 집단의 경우 <표 5-6>과 <그림 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BIF LOW)은 쿠폰A의 쿠폰매력도 4.35(SD=1.56)와 쿠폰B의 쿠폰매력도 4.51(SD=1.4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49) = .059, p = .810$). 반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BIF HIGH)은 쿠폰A의 쿠폰매력도 5.39(SD=1.47)와 쿠폰B의 쿠폰매력도 3.86(SD=1.89)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49) = 4.977, p = .036$).

<표 5-6> 남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쿠폰A 스탬프10개 (n=34)	쿠폰B 스탬프7개 (n=15)			
쿠폰매력도	BIF LOW (n=24)	4.35 (1.56)	4.51 (1.40)	.059	.810
	BIF HIGH (n=25)	5.39 (1.47)	3.86 (1.89)	4.977	.036*

* $p < .05$.

<그림 5-4> 남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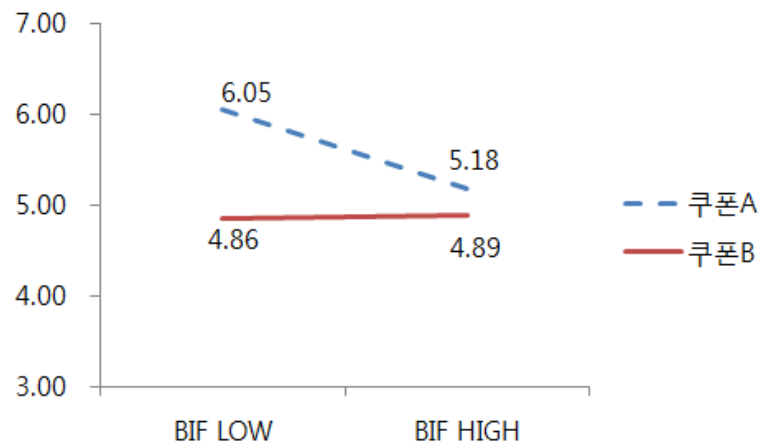
여자 집단의 경우 <표 5-7>과 <그림 5-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BIF LOW)은 쿠폰A의 쿠폰매력도 6.05(SD=1.62)와 쿠폰B의 쿠폰매력도 4.86(SD=1.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53) = 6.529, p = .015$). 반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BIF HIGH)은 쿠폰A의 쿠폰매력도 5.18(SD= .70)과 쿠폰B의 쿠폰매력도 4.89(SD=1.7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53) = .185, p = .674$). 추상적 사고수준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 때,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을 때 의사결정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강한 남자는 원거리적 시각을 가지고 보다 추상적이고 상위수준의 해석을 할 것이며,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강한 여자는 근거리적 시각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하위수준의 해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일치한다.

<표 5-7> 여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쿠폰A 스탬프10개 (n=29)	쿠폰B 스탬프7개 (n=24)		
쿠폰매력도	BIF LOW (n=37)	6.05 (1.62)	6.529	.015*
	BIF HIGH (n=16)	5.18 (.70)		
			.185	.674

* $p < .05$.

<그림 5-5> 여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쿠폰매력도 차이



2) 결과논의

연구 2에서는 보상프로그램의 하나인 쿠폰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 행동이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쿠폰A와 쿠폰B의 차이는 이미 찍혀 있는 스탬프의 개수로서 두 개의 쿠폰 모두 앞으로 6개의 스탬프를 찍어야하지만 쿠폰A의 경우 이미 찍혀 있는 스탬프가 4개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쿠폰을 완성하기 위한 목표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프레이밍되는 효과가 발생한

다. 연구결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쿠폰 유형에 따른 쿠폰 매력도의 차이를 다르게 느꼈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달랐다. 즉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쿠폰 유형에 따른 쿠폰 매력도의 차이가 컸으며(<가설 2>),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쿠폰 유형에 따른 쿠폰 매력도의 차이가 컸으며,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쿠폰 매력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가설 3>).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목표에 대한 도달성을 높게 보았고,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목표에 대한 도달성을 높게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행동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6 장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과 수강신청 의도의 차이(연구 3)

연구 2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의사결정 차이가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을 살펴보고 성별에 유의한 의사결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추상적 사고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3에서는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적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해석수준이론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해석은 더 추상적이 되고 추상수준이 증가한다. 또한 사람들이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해석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거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즉 시간적 거리는 절대적 거리는 같지만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리가 다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시간적 거리 해석이 다르고 성별차이가 발생하여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수록 먼 미래는 더 멀리, 가까운 미래는 더 가까이 보는 현상(줌인-줌아웃)이 강하게 나타나고,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을수록 줌인-줌아웃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간적 거리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실험 연구 설계

207명의 J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실험을 실시하였다. 전체 참가자 중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답한 35개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172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불성실 설문지를 골라내는 조건은 시간적 거리를 묻는 설문항목 중 “1년 후(2주 후)는 가깝게 느껴진다.”와 “1년 후(2주 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1년 후(2주 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세 개의 설문항목에 같은 응답을 한 설문지를 불성실 응답으로 판별하여 35

개를 골라내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시간적 거리: 가까운 미래 vs. 먼 미래) × 2(사고수준: BIF HIGH vs. BIF LOW) × 2(성별: 남 vs. 여) 집단 간 실험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과 수강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한 설문은 시간적 거리(가까운 미래: 2주 후 vs. 먼 미래: 1년 후)를 달리한 총 2종류로서 피험자들은 이 가운데 한 종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추상적 사고수준(BIF HIGH vs. BIF LOW)은 행동정체성 척도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여 추후 구분하였다. 설문항목 구성은 <표 6-1>, 조건별 집단 분포는 <표 6-2>와 같다.

<표 6-1> 설문항목 구성

구성	항목	인용
성별	성별체크(남 vs 여)	
시간거리	시나리오제시 (2주 후 vs 1년 후)	Zhao, Hoeffler, Zauberman(2007)의 포토에세이 과제실험
사고수준	행동정체성척도(BIF)	Vallacher and Wegner(1987)의 행동정체성 척도 - 25가지의 추상적 문항과 구체적 문항으로 설문
주관적 시간적 거리	자신이 느끼는 시간적 거리 체크 (2주 후 vs 1년 후)	Bashir, Wilson, Lockwood, Chasteen, and Alisat (2014)의 환경오염 예방 실험

<표 6-2> 실험 조건별 최종 피험자 수

성별	추상적 사고수준	시간적 거리		인원 (명)
		가까운미래 (2주 후)	먼 미래 (1년 후)	
남	BIF HIGH	18	26	44
	BIF LOW	20	10	30
여	BIF HIGH	14	24	38
	BIF LOW	32	28	60
합계		84	88	172

2) 변수의 조작정의와 측정

(1) 독립변수

- 시간적 거리

기존 연구들에서 조작된 시간적 거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미래 조건은 2주 후, 먼 미래 조건은 1년 후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시간적 거리가 의도한 대로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문항에 조작 점검 문항을 포함시켰다. 시간적 거리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개 문항(“2주 후(1년 후)는 가깝게 느껴진다.”, “2주 후(1년 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2주 후(1년 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의 9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9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6-3, 표 6-4>).

<표 6-3> 시간적 거리 조작 점검을 위한 설문의 구성-조건: 2주 후

구분	문항내용	척도
시간적 거리	“2주 후”는 가깝게 느껴진다.	리커트 9점척도
	“2주 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2주 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표 6-4> 시간적 거리 조작 점검을 위한 설문의 구성-조건: 1년 후

구분	문항내용	척도
시간적 거리	“1년 후”는 가깝게 느껴진다.	리커트 9점척도
	“1년 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1년 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조작 점검 문항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설문 문항들에 t-검증을 실시하였다. 시간적 거리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설문문항 “2주 후(1년 후)는 가깝게 느껴진다.”에 대하여 가까운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은 5.79(SD=2.04)이고 먼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은 6.73(SD=1.90)으로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172) = 3.134, p = .002$). 두 번째 설문문항 “2주 후(1년 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가까운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은 5.48(SD=1.93)이고 먼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은 4.18(SD=2.18)로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172) = -4.117, p < .001$). 세 번째 설문문항 “2주 후(1년 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에 대하여 가까운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은 5.52(SD=2.14)이고 먼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은 6.64(SD=1.98)로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172)=3.541, p = .001$). 따라서 시간적 거리에 대한 독립변수는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다(<표6-6>).

<표 6-5> 시간적 거리의 조작 점검 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2주 후 (n=84)	1년 후 (n=88)		
1년 후(2주 후)는 가깝게 느껴진다	5.79(2.04)	6.73(1.90)	3.134	.002*
1년 후(2주 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5.48(1.93)	4.18(2.18)	-4.117	.000*
1년 후(2주 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5.52(2.14)	6.64(1.98)	3.541	.001*

* $p < .01$.

- 추상적 사고수준

추상적 사고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동정체성척도를 사용하여 BIF 점수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해석수준을 추상적사고가 높은 집단과 추상적사고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BIF점수의 중위값은 12였고 BIF점수가 12보다 높으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HIGH), BIF점수가 12보다 낮으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LOW)으로 구분하였다. 사고수준별 집단 분포는 <표 6-6>과 같다

<표 6-6> 시간적 거리와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집단 분포

BIF	시간적거리	N
BIF LOW	1년후	38
	2주후	52
BIF HIGH	1년후	50
	2주후	32

(2) 종속변수

- 주관적 시간적 거리 인식

주어진 시간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ashir et al.(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간적 거리 인식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이 표시된 설문지의 직선위에 피험자가 표시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지점에서 2주 후 혹은 1년 후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표시하도록 하여 현재에서 표시된 지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문을 2016년도에 실시하였기에 아래 설문지예시의 현재가 2016년도라 표시되었다.

(설문지예시)

아래 그림을 보고 직선위에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께서 “2주 후”라고 생각 되는 지점에 화살표시(↓) 해 주십시오.

현재(2016년) 2030년

피험자들이 표시한 길이를 측정한 결과 피험자들은 평균적으로 2주후는 1.87, 1년 후는 3.46지점에 화살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6-7>).

<표 6-7> 시간적 거리에 따른 거리인식 평균 및 집단 분포

시간적 거리	거리 평균	N
먼 미래 (1년 후)	3.46	88
가까운 미래 (2주 후)	1.87	84

- 수강신청 의도

시간적 거리 및 추상적사고수준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수강신청 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이 과목을 수강신청 할 의향이 있다.”, “나는 이 과목에 호감을 느낀다.”,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면 나는 이 과목을 수강하겠다.”에 대한 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여 3개의 문항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신뢰성 분석

연구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항목들의 신뢰성 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해 보았다.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은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로 평가되는데, 항목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 일관성이 높다(최인정, 2004). 이를 위해 다 항목으로 측정된 항목들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기초연구단계에서 비교적 신뢰할 만하고, 0.7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신뢰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6-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0으로 나타나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각 문항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척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강신청의 바람직성 및 실행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각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6-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9, 0.85로 나타나 각 문항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척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6-8>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

개념	항목수	항 목	Cronbach's α
수강신청 의도	3	나는 이 과목을 수강신청 할 의향이 있다 나는 이 과목에 호감을 느낀다.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면 나는 이 과목을 수강하겠다.	.90
바람직성	3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가치있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할 것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89
실행 가능성	3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쉽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쉽다.	.85

2)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항목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송지준, SPSS/AMOS 통계 분석방법, 2012).

<표 6-9>는 수강신청 의도에 대한 종속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설명된 총 분산은 82.72%로 나타났다.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모든 측정변수들의 요인 적재치 값은 0.40이상을 넘어 개념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6-9>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

항 목	요인분석		
	수강신청 의도	바람직성	실행가능 성
- 나는 이 과목을 수강신청 할 의향이 있다	.84		
- 나는 이 과목에 호감을 느낀다.	.79		
-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면 나는 이 과목을 수강하겠다.	.91		
-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가치있다.		.78	
-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할 것이다.		.87	
-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91	
-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92
-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쉽다.			.90
-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쉽다.			.66
Eigen-value	2.52	2.61	2.31
분산설명(%)	27.99	29.03	25.71

3. 연구결과

1)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밝혀진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소비자 의사결정의 차이가 남녀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심리적 거리를 주관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적 거리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차이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사고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아 시간적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먼 미래는 더 멀리, 가까운 미래는 더 가까이 인식하는 줌인-줌아웃 현상이 강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추상적 사고수준, 시간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시간거리와 수강신청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첫 번째 주관적 시간거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시간적 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연구 2와 마찬가지로 수강신청이라는 의사결정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의사결정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주관적 시간거리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 T-test를 실시하였다. 추상적 사고수준(추상적 사고수준: 고수준 vs 저수준)과 시간적 거리(시간적 거리: 2주 후 vs 1년 후)에 따른 각 집단별 주관적 시간적 거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10>에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표 6-10>에 나타난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를 살펴보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소비자(BIF LOW)는 1년 후의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 2.71(SD=1.29)이 2주 후의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 1.92(SD=1.91)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1,172) = 2.350, p = .021$).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소비자(BIF HIGH)는 1년 후의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 4.03(SD=2.76)이 2주 후의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 1.80(SD=1.93)보다 높게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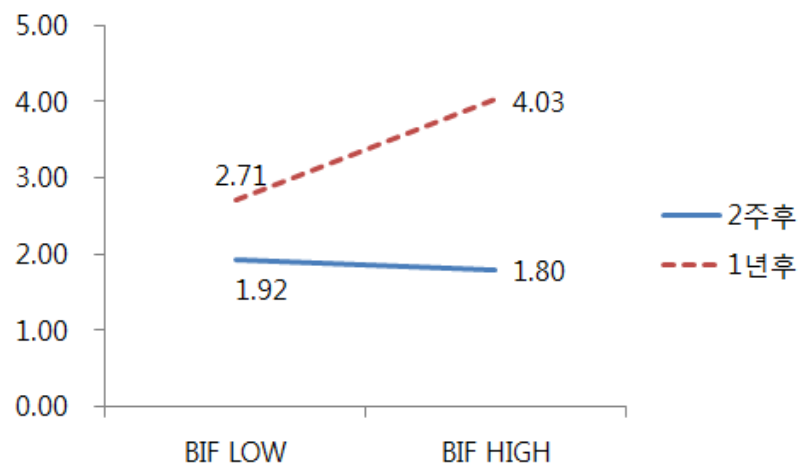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1,172) = 3.986, p < .001$). 두 집단 모두 1년 후는 먼 미래로 2주 후는 가까운 미래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6-1>에서 보듯이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소비자(BIF HIGH)가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소비자(BIF LOW)보다 1년 후는 더 멀리 인식하고, 2주 후는 더 가까운 미래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적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먼 미래는 더 멀리, 가까운 미래는 더 가까이 인식하는 쭈민-쭈아웃 현상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6-10>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주관적 시간적 거리에 대한 T-Test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1년 후 (n=88)	2주 후 (n=84)		
BIF LOW (n=90)	2.71 (1.29)	1.92 (1.91)	2.350	.021*
BIF HIGH (n=82)	4.03 (2.76)	1.80 (1.93)	3.986	.000**

* $p < .05$., ** $p < .01$.

<그림 6-1>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 인식차이



다음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의 추상적 사고수준별 소비자 의사결정의 차이가 대학생의 수강신청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수강신청의도로 설정하여, 추상적 사고수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시간적 거리와 추상적 사고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수강신청 의도에 대하여 응답받은 세 개의 문항 점수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11>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의 평균(표준편차)

성별	추상적 사고수준	시간적거리	평균(표준편차)	N
남	LOW	1년 후	4.07(1.70)	10
		2주 후	6.23(2.00)	20
	HIGH	1년 후	5.74(2.03)	26
		2주 후	4.93(1.94)	18
	합계	1년 후	5.28(2.06)	36
		2주 후	5.61(2.54)	38
		합계	5.45(2.05)	74
여	LOW	1년 후	4.57(1.90)	28
		2주 후	4.38(1.97)	32
	HIGH	1년 후	5.39(2.20)	24
		2주 후	3.29(1.99)	14
	합계	1년 후	4.95(2.06)	52
		2주 후	4.04(2.02)	46
		합계	4.53(2.08)	98

<표 6-12> 성별, 추상적 사고수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의도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성별(A)	26.44	1	26.44	6.678	.011*
추상적사고수준(B)	.02	1	.02	.006	.940
시간적거리(C)	2.13	1	2.13	.538	.464
A × B	.97	1	.97	.245	.621
A × C	31.39	1	31.39	7.929	.005*
B × C	56.41	1	56.41	14.248	.000*
A × B × C	2.74	1	2.74	.692	.407
오차		164	3.96		
전체	1292.75	172			

* $p < .05$. * $p < .01$.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의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결과, <표 6-13>와 <표 6-14>에 나타난 수강신청 의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를 살펴보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소비자(BIF LOW)는 1년 후의 수강신청 의도 4.44(SD=1.84)보다 2주 후의 수강신청 의도가 5.09(SD=2.17)로 높았으며,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소비자(BIF HIGH)는 1년 후의 수강신청 의도 5.57(SD=2.10)이 2주 후의 수강신청 의도 4.21(SD=2.10)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6-13>). <표 6-14>에서 보듯이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172) = 9.847, p = .002$).

<표 6-13>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의 평균

BIF	시간적거리	평균(표준편차)	N
BIF LOW	1년후	4.44(1.84)	38
	2주후	5.09(2.17)	52
BIF HIGH	1년후	5.57(2.10)	50
	2주후	4.21(2.10)	32

<표 6-14>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간적거리(A)	5.27	1	5.27	1.234	.268
BIF수준(B)	0.66	1	0.66	0.155	.694
A × B	41.99	1	9.85	9.847	.002*
오차	716.45	168			
전체	4932.00	172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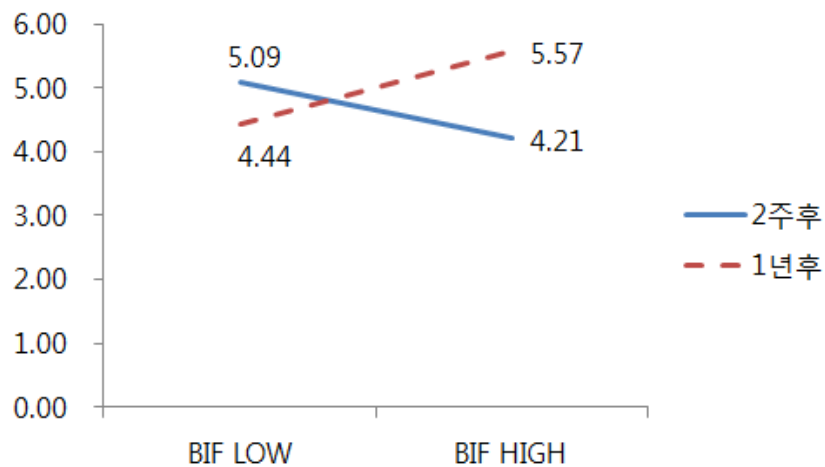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BIF HIGH)과 낮은 집단(BIF LOW)으로 분류하여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의도에 대한 T-test를 한 결과, <표 6-15>와 <그림 6-2>에서 보듯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t(172) = 2.876, p = .005$),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소비자의 수강신청 의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72) = -1.499, p = .138$). 즉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의사결정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6-15>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수강신청의도에 대한 T-Test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1년후 (n=88)	2주후 (n=84)		
BIF LOW (n=90)	4.44 (n=1.84)	5.10 (n=2.17)	-1.499	.138
BIF HIGH (n=82)	5.57 (n=2.10)	4.21 (n=2.10)	2.876	.005*

* $p < .01$.

<그림 6-2>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



시간적 거리는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소비자에게 해당되고,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간적 거리는 구체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성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소비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구체성이 높아져 시간적 거리를 더 크게 느껴 의사결정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반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구체성이 낮아 시간적 거리에 따른 의사결정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즉 구체성은 시간적 거리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만 매개하고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의사결정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을 살펴보았다. 행동정체성 척도를 사용한 추상적 사고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 <표 6-16>과 <그림 6-3>에서 보듯이, 남자의 추상적 사고점수는 14.16(SD=4.77)으로 여자의 추상적 사고점수인 11.45(SD=4.06)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172) = 3.933, p < .001$).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추상적 사고 점수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BIF점수의 중위값은 12였고 BIF점수가 12보다 높으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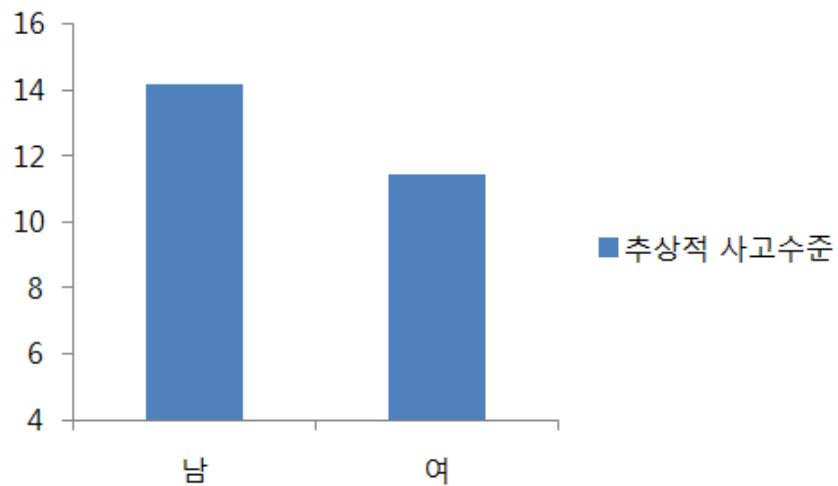
단(HIGH), BIF점수가 12보다 낮으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LOW)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고,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연구 1 및 연구 2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 6-16>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에 대한 T-Test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남 (n=74)	여 (n=98)		
추상적사고 점수 (BIF점수)	14.16 (4.77)	11.45 (4.06)	3.933	.000*

* $p < .01$.

<그림 6-3>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 집단을 분류하여 추상적 사고수준과 시간적 거리(1년 후와 2주 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시간적 거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 집단의 경우 <표 6-17>과 <그림 6-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BIF LOW)은 1년 후 3.06(SD=1.79)와 2주 후 2.50(SD=1.74)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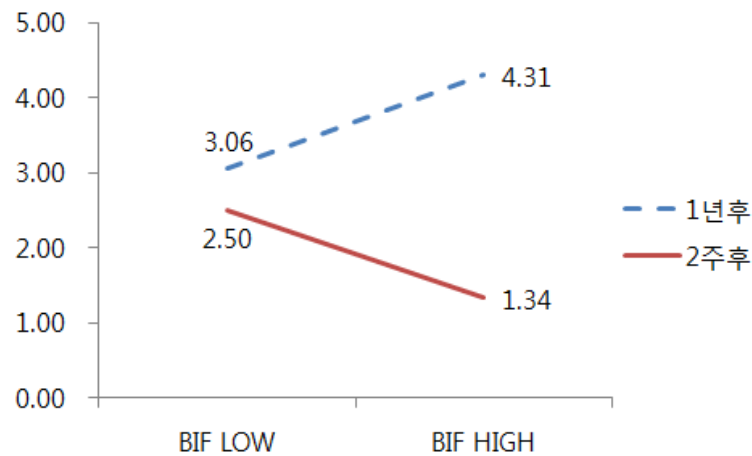
주관적 시간거리로 인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74) = .677, p = .418$). 반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BIF HIGH)은 1년 후 4.31($SD=2.99$)과 2주 후 1.34($SD=1.53$)를 주관적 시간거리로 인식하였고 시간적 거리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4) = 14.900, p < .001$).

<표 6-17> 남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시간적 거리 인식의 평균(분산분석)

구분	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1년후 (n=36)	2주후 (n=38)		
남	BIF LOW (n=30)	3.06 (1.79)	0.677	.418
	BIF HIGH (n=44)	4.31 (2.99)		

* $p < .01$.

<그림 6-4> 남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시간적 거리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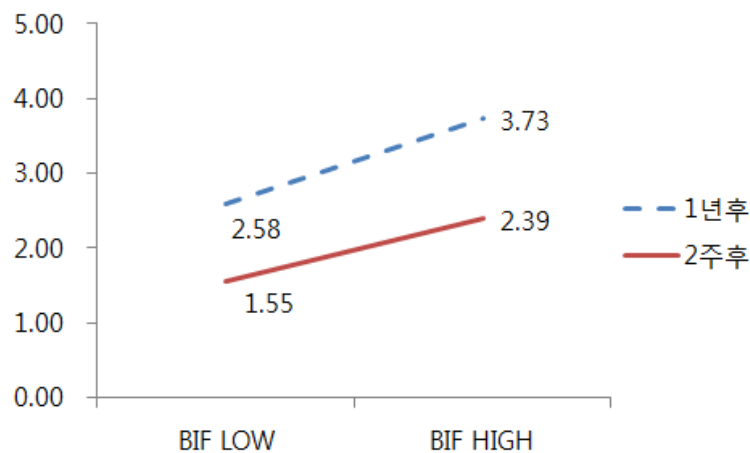
여자 집단의 경우 <표 6-18>과 <그림 6-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BIF LOW)은 1년 후 2.58(SD=1.06)과 2주 후 1.55(SD=1.94)의 주관적 시간적 거리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98) = 6.257, p = .015$). 반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BIF HIGH)은 1년 후 3.73(SD=2.50)과 2주 후 2.39(SD=2.28)의 주관적 시간적 거리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98) = 2.699, p = .109$). 따라서 추상적 사고수준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 때,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을 때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6-18> 여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시간적 거리 인식의 평균(분산분석)

구분	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1년후 (n=52)	2주후 (n=46)		
여	BIF LOW (n=60)	2.58 (1.06)	6.257	.015*
	BIF HIGH (n=38)	3.73 (2.50)	2.699	.109

* $p < .01$.

<그림 6-5> 여자의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시간적 거리인식



2) 결과논의

연구 3은 성별에 따른 소비자 의사결정의 차이에서,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적 거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고, 이는 성별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났다. 즉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시간적 거리 인식의 차이가 컸으며,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시간적 거리 인식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2에서의 성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가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석수준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으면 대상의 중심적 특성,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 3을 통하여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으면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차이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7 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행동차이를 자아해석과 해석수준이론의 추상적 사고수준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간적 거리의 주관적 인식이 성별에 따라 다름에 주목하여 추상적 사고수준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성별, 추상적 사고수준, 심리적 거리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성별에 따른 추상적 사고수준 차이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3번의 실험연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물로는 캡차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 커피숍의 쿠폰을 사용한 보상프로그램, 주관적 시간거리 인식, 수강신청 의도이다.

기존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추상적 사고가 높아져 본질적인 바람직한 사고와 관련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남자와 여자의 자아해석과 해석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행동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사고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는 추상적 사고를 할 때, 여자는 구체적 사고를 할 때 시간적 거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론은 기존 해석수준이론에서 추상적 사고가 높을수록 바람직함이 높아진다는 것에 집중된 연구가 연구자의 남성적인 관점에 맞춘 연구였고 여성적인 관점은 덜 고려되었음을 의미한다.

로렌스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발달론은 캐롤 길리건(C. Gilligan)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길리건은 도덕발달이론의 주연구대상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도덕적 학습에 성별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격발달에 맞춘 통찰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도덕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김진, 2011; 박효종, 2001). 의학계에서 의사들이 진료에 이용하는 정보는 대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이다(김지은, 진건, 2005). 레가토(Marianne J. Legato, 1991)는 “여성의 심장: 여성과 관상 동맥 질환에 대한 진실”에서 관상 동맥질환의 치료법이 여성과 남성이 다르고 그동안 남성중심의 치

료법을 그대로 여성에게 적용하였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석수준이론에서 설명하는 심리적 거리에 따른 의사결정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적 사고수준은 소비자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주관적 시간 거리인식을 더 크게 인식하여 먼 미래는 더 멀리, 가까운 미래는 더 가까이 인식하는 줌인-줌아웃 현상이 검증되었다. 보상프로그램의 하나인 커피숍 쿠폰 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에 대한 실험에서도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쿠폰 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들의 수강신청의도 또한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대학생 집단에서 시간적 거리에 따른 수강신청 의도의 차이가 있었다. 해석수준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으면 대상의 중심적 특성,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2와 연구3을 통하여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으면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차이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먼 미래는 망원경을 통해 대상을 볼 때처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고, 가까운 미래는 돋보기를 통해 대상을 볼 때처럼 미시적 관점으로 현상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줌인-줌아웃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둘째, 추상적 사고수준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의사결정 차이가 있었고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의사결정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달랐다.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도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아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림 캡차”에 대한 정보보안 선호도가 높았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아 구체적으로 표현된 “글자 캡차”에 대한 정보보안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추상적 사고수준만을 고려한 사고수준과 메시지 유형이 일치할 때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해석수준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성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수준이론의 연구 검토에서 광고, 문제특성, 조절초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지만 성별차이를 본 연구가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추상적 사고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본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표 7-1> 연구 가설 검증 및 결과

가설 번호	연구 가설	종속 변수	검증 결과	검증방법
1	소비자 선호에서 성별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 남자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여자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정보보안 선호도(캡차)	채택	카이제곱 검정
2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추상적 사고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의사결정 차이가 클 것이다.	소비자행동(쿠폰)	채택	T-Test
		주관적 시간 거리인식	채택	T-Test
		수강신청의도	채택	T-Test
3	추상적 사고 수준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남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은 집단이, 여자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의사결정 차이가 클 것이다	소비자행동(쿠폰)	채택	ANOVA
		주관적 시간 거리인식	채택	ANOVA

우리의 생활은 모두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소비자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구성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본 연구의 결과가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캡차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성별 및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정보보안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캡차가 웹 보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따라서는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을 위한 행동을 높이고 더욱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별과 추상적 사고수준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구성이 필요함을 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 구체적 사고수준이 높을 때 의사결정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영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남자의 경우 추상적 사고수준이 높을 때 의사결정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대상을 통한 목표달성, 바람직성을 강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통하여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다.

2 . 연구의 한계

많은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실험설계를 적용하면서 대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율에 맞추어 표본 수집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보해석과 추상적 사고수준의 영향을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상적 사고수준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갈수록 변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가설의 일반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하여 광고를 해석하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효과적이었다(홍영일,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추상성이 높게 인식되어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차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 캡처의 추상적 수준이 높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글자 캡처와 그림 캡처의 추상성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1의 정보보안 선호도에 있어서 남자는 추상적인 대상을 선호하고 여자는 구체적인 대상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가설 2와 연구가설 3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간적 거리를 포함하여 정보보안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더 일반화된 가설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심리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 및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가상적 거리의 4가지 차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만을 고려하였는데 4가지 차원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도달가능성(reachability)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논문

- 강전일, 맹영재, 김군순, 양대현, 이경희,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사용하는 이미지 기반의 캡차와 이를 위한 안전한 운용 방법”,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2008, 153-166.
- 강지현, 황선진, 여준상, “해석수준과 원시안이 보상물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제13권, 제1호, 2012, 63-84.
- 김경호, 하영원, 전성률, “시간적 거리가 소비자의 타협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제28권, 제1호, 2013, 161-180.
- 김동직,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동직, 한성열,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2권, 제1호, 1998, 71-93.
- 김민철, 이경렬, “시간적 거리와 행동정체성 수준에 따른 광고메시지 유형별 효과에 관한 연구: 공인영어시험 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26권, 제8호, 2015, 119-144.
- 김은희, “모바일 광고 수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4권, 제4호, 2016, 149-161.
- 김재환, 김수아, 김형중, “특징 분리를 통한 자연 배경을 지닌 글자 기반 CAPTCHA 공격”,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5권, 제5호, 2015, 1011-1019.
- 김진, “콜버그 대 길리건: ‘정의’와 ‘배려’는 도덕원리로서 양립 가능한가?”, *대동철학*, 제57권, 2011, 185-211.
-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1권, 제4호, 2006, 437-458.
- 박상철, 정남호, “성별차이에 따른 인터넷 쇼핑물 이용행위에 대한 이해”, *대한경*

- 영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0, 675-695.
- 박찬정, 현정석, 김상미, “고등학생의 교육용 프로그램 이해와 추상적 사고력, 프로그래밍 언어경험 간의 관계분석-RUR-PLE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6권 제3호, 2016, 241-250.
- 박후동, 하환호, “행동식별수준에 따른 메시지수준과 할부기간의 제시효과”, *Korea Business Review*, 제19권, 제4호, 2015, 239-249.
- 변제성, 강전일, 양대헌, 이경희,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사용하는 캡처의 안전성 검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2권, 제4호, 2012, 761-770.
- 부수현, 김재휘, “의사결정 시점에 따른 메시지 적합성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24권, 1호, 2013, 7-30.
- 서문식, 김상희, “성별에 따른 인터넷 쇼핑상황에서의 감정적 반응이 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제9권, 2002, 101-128.
-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김영사, 2011.
- 양윤, 김민혜, “해석수준, 메시지유형, 시간적 거리가 메시지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2, 151-172.
- 이경은, 현정석, 박찬정, “시간거리와 시간관이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2016, 13-21.
- 이태희, “인터넷 쇼핑행동에서 성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혜림, 조재희, “청소년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용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성별 및 지역 차이”,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2016, 83-89.
- 이효신, “청소년의 성별과 프로필기반 SNS 이용양상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임윤진,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기술적 문제해결 사고력 차이에 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2016, 345-358.
- 장혜정, 경병표, 이동열, 이완복, 유석호,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용 게임 디자인 요소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2011, 128-136.

- 현정석, 박찬정, “추상적 사고수준에 따른 초·중학생들의 문제해결력 관계분석”,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추계학술대회*, 제2권, 제4호, 2016, 999-1002.
- 현정석, 박찬정, 하환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대한 성별 시간관 차이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2013, 412-424.
- 현정석, 이경은, 김정윤, 박찬정, “추상적 사고 수준 측정을 위한 2차 행동정체성 문항 개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8권, 제1호, 143-147.
- 홍영일, “컴퓨터그래픽 표현유형에 따른 소비자 성별, 세대별, 직업별 광고효과 차이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6, 179-190.

2. 국외논문

- Bashir, N. Y., Wilson, A. E., Lockwood, P., Chasteen, A. L., and Alisat, S., "The Time for Action is Now: Subjective Temporal Proximity Enhances Pursuit of Remote-Future Goals," *Social Cognition*, Vol. 32, No. 1, 2014, 83-93.
- Baumeister, R. F., and Sommer, K. L.,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 (1997),"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2, 1997, 38-44.
- Boroditsky, L., and Ramscar, M., "The Roles of Body and Mind in Abstract Thought," *Psychological Science*, Vol. 13, No. 2, 2002, 185-189.
- Burgoon, E. M., Henderson, M. D., and Markman, A. B., "There Are Many Ways to See the Forest for the Trees: A Tour Guide for Abstrac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8, No. 5, 2013, 501-520.
- Buunk, B. P., and VanYperen, N. W., "Social Comparison, Equ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Over a Ten-year Period," *Social Justice Research*, Vol. 3, No. 2, 1989, 157-180.
- Clancy, S. M., and Dollinger, S. J., "Photographic Depictions of the Self: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Social Connectedness," *Sex Roles*, 29(7-8), 1993, 477-495.
- Croson, R., and Gneezy, U., "Gender Differences in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7, No. 2, 2009, 448-474.
- Cross, S. E., and Madson, L.,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2, No. 1, 1997, 5-37.
- Cross, S. E., Morris, M. L., and Gore, J. S.,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3, 2002, 399-418.
- Dhar, R., and Kim, E. Y., “Seeing The Forest or The Trees: Implications of Construal Level Theory for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17, No. 2, 2007, 96-100.
- Eyal, T., Liberman, N., Trope, Y., and Walther, E., “The Pros and Cons of Temporally Near and Distant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4, 781-795.
- Eyal, T., Sagristano, M. D., Trope, Y., Liberman, N., and Chaiken, S., “When Values Matter: Expressing Values in Behavioral Intentions for the Near vs. Distant Fu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5, No. 1, 2009, 35-43.
- Finke, R. A., Ward, T. B., and Smith, S. M., “Creative Cogni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Appendix D. Reviews*, 1992, 238-247.
- Forster, J., and Denzler, M., “When any Worx Looks Typical to You: Global Relative to Local Processing Increases Prototypicality and Li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8, No. 1, 2012, 416-419.
- Forster, J., Epstude, K., and Ozelsel, A., “Why Love Has Wings and Sex Has Not: How Reminders of Love and Sex Influence Creative and Analy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No. 11, 2009, 1479-1491.
- Forster, J., Friedman, R. S., and Liberman, N., “Temporal Construal Effects on Abstract and Concrete Thinking: Consequences for Insight and Creative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7, No. 2, 2004, 177-189.
- Forster, J., Friedman, R. S., and Liberman, N., “Temporal Construal Effects on Abstract and Concrete Thinking: Consequences for Insight and Creative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Vol. 87, No. 2, 2004, 177-189.
- Freitas, A. L., Gollwitzer, P., and Trope, Y., "The Influence of Abstract and Concrete Mindsets on Anticipating and Guiding Others' Self-Regulatory Effor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0, No. 6, 2004, 739-752.
- Fujita, K., and Sasota, J. A., "The effects of construal levels on asymmetric temptation-goal cognitive associations," *Social Cognition*, Vol. 29, No. 2, 2011, 125-146.
- Guimond, S., Chatard, A., Martinot, D., Crisp, R. J., and Redersdorff, S., "Social Comparison, Self-Stereotyp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str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0, No. 2, 2006, 221-242.
- Hansen, J., and Trope, Y., "When Time Flies: How Abstract and Concrete Mental Construal Affect the Perception of Tim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Vol. 142, No. 2, 2012, 336-348.
- Hernandez-Castro, C. J., and Ribagorda, A., "Pitfalls in CAPTCHA Design and Implementation: The Math CAPTCHA, A Case Study," *computers & security*, Vol. 29, No. 1, 2010, 141-157.
- Ickes, W., Robertson, E., Tooke, W., and Teng, G., "Naturalistic Social Cognition: Methodology, Assess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1, 1986, 66-82.
- Irmak, C., Wakslak, C. J., and Trope, Y., "Selling the Forest, Buying the Trees: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Seller-Buyer Price Discrepanc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40, No. 2, 2013, 284-297.
- Linkenauger, S. A., Witt, J. K., Stefanucci, J. K., Bakdash, J. Z., and Proffitt, D. R., "The Effects of Handedness and Reachability on Perceived Dista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Vol. 35, No. 6, 2009, 1649-1660.

- Markus, H. R., and Kitayama, S.,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8, No. 2, 1991, 224-253.
- Melnyk, V., Van Osselaer, S. M., and Bijmolt, T. H., "Are Women More Loyal Customers Than Men? Gender Differences in Loyalty to Firms and Individual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Marketing*, Vol. 73, No. 4, 2009, 82-96.
- Meyers-Levy, J., and Maheswaran, D., "Exploring Differences in Males' and Females' 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8, No. 1, 1991, 63-70.
- Nunes, J. C., and Drèze, X., "The Endowed Progress Effect: How Artificial Advancement Increases Effor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2, No. 4, 2006, 504-512.
- Peetz, J., Wilson, A. E., and Strahan, E. J., "So Far Away: The Role of Subjective Temporal Distance to Future Goals in Motivation and Behavior." *Social Cognition*, Vol. 27, No. 4, 2009, 475-495.
- Preston, C. C., and Colman, A. M., "Optimal Number of Response Categories in Rating Scales: Reliability, Validity, Discriminating Power, and Respondent Preferences," *Acta psychologica*, Vol. 104, No. 1, 2000, 1-15.
- Roalf, D., Lowery, N., and Turetsky, B. I.,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Findings of Gender Differences in Global-Local Visual Processing," *Brain and cognition*, Vol. 60, No. 1, 2006, 32-42.
- Trope, Y. and N. Liberman,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Vol. 117, No. 2, 2010, 440-463.
- Trope, Yaacov, and Nira Liberman, "Temporal Construal and Time-Dependent Changes in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9, No. 6, 2000, 876-889.
- Trope, Yaacov, and Nira Liberman,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 Review*, Vol. 110, No. 3, 2003, 403-421.
- Trope, Yaacov, Nira Liberman, and Cheryl Wakslak,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Consumer Psychology*, Vol. 17, No. 2, 2007, 83-95.
- Vallacher, R. R., and D. M. Wegner, "Levels of Personal Agency: Individual Variation in Action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4, 1989, 660-671.
- Vallacher, R. R., and D. M. Wegner, "What Do People Think They're Doing? Action Identification and Huma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Vol. 94, No. 1, 1987, 3-15.
- Vallacher, R. R., Wegner, D. M., and Somoza, M. P., "That's Easy for You to Say: Action Identification and Speech Fl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6, No. 2, 1989, 199-208.
- Wegner, D. M., Vallacher, R. R., Macomber, G., Wood, R., and Arps, K., "The Emergence of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6, No. 2, 1984, 269-279.
- Witt, J. K., and Proffitt, D. R., "See the Ball, Hit the Ball Apparent Ball Size Is Correlated With Batting Average," *Psychological Science*, Vol. 16, No. 12, 2005, 937-938.
- Witt, J. K., Linkenauger, S. A., Bakdash, J. Z., and Proffitt, D. R., "Putting to a Bigger Hole: Golf Performance Relates to Perceived Size,"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Vol. 15, No. 3, 2008, 581-585.
- Wang, M., Zhang, T., Jiang, W., and Song, H., "The Recognition of CAPTCHA," *Journal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s*, Vol. 2, No. 2, 2014, 14-19.
- Yarmey, A. D., "Adult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Eyewitness Recall in Field Settings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3,

No. 23, 1993, 1921-1932.

Zhao Min and Jinhong Xie, "Effects of Social and Temporal Distance on Consumer's Responses to Peer Recommend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48, No. 3, 2011, 486-496.

<연구 1> 정보보안(캡차)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연구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은 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각 문항은 귀하의 생각으로 솔직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설문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지도교수 현 정 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이 경 은

※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 귀하의 나이는? (만 세)

- 뒷장에서 계속 -

1. 아래 제시된 각 상황에 대해 각각 2개의 진술문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2개의 진술문 가운데 **주어진 상황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골라 ()안에 √ 표 해 주십시오.** 정답은 없으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목록 만들기	① () 조직화하기 ② () 할 일 적기
2	읽기	① () 인쇄물의 줄 따라 내려가기 ② () 지식 얻기
3	군대에 지원하기	① () 국가의 방어를 도와주기 ② () 군대지원 신청서 쓰기
4	세탁하기	① () 옷에서 냄새 없애기 ② () 옷들을 세탁기에 넣기
5	사과 집기	① () 무언가 먹을 것을 획득하기 ② () 나뭇가지에서 사과를 따기
6	나무 베기	① () 도끼 휘두르기 ② () 빨간 얻기
7	카펫을 깔기 위해 방 크기를 측정하기	① () 리모델링 준비하기 ② () 줄자 사용하기
8	집 청소하기	① () 개인의 청결함을 보여주기 ② () 진공청소기로 방을 청소하기
9	방을 페인트 칠하기	① () 붓 칠하기 ② () 방을 새롭게 보이게 만들기
10	임대료 지불하기	① () 살 장소를 유지하기 ② () 지불수표 작성하기
11	실내 화초 기르기	① () 식물에 물주기 ② () 방을 멋있어 보이게 만들기
12	문 잠그기	① () 열쇠로 자물쇠 걸기 ② () 집을 보호하기
13	투표하기	① ()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② () 투표용지에 마킹하기
14	나무에 오르기	① () 좋은 경치 보기 ② () 나뭇가지 붙잡기
15	성격 테스트 질문지 기입하기	① () 질문에 응답하기 ② ()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기
16	이빨 닦기	① () 충치 예방하기 ② () 입 안에서 칫솔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기
17	시험보기	① () 질문에 응답하기 ② () 개인의 지식수준을 보여주기
18	누군가와 인사하기	① () 안녕이라 말하기 ② () 친근함을 나타내기
19	유혹에 저항하기	① () “아니오”라고 말하기 ② () 도덕적인 용기를 보여주기
20	먹기	① () 영양분을 섭취하기 ② () 씹고 삼키기
21	정원 가꾸기	① () 식물 심기 ② () 신선한 채소를 얻기
22	자가용으로 여행하기	① () 지도를 보며 길 따라가기 ② () 시골길 구경하기
23	충치 치료하기	① () 치아를 보호하기 ② () 치과의사에게 가기
24	아이에게 말 걸기	① ()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② () 단순한 단어들 사용하기
25	초인종 누르기	① () 손가락 움직이기 ② () 누군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2.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 할 때 자동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캡차(CAPTCHA)를 접할 수 있습니다. 캡차(CAPTCHA,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는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변형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여 온라인상에서 사용자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해주는 보안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안문자로 불립니다.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스팸메일, 광고, DDoS등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사람이 캡차를 인식할 때 평균 10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캡차의 예>



다음 장에서는 온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캡차에 대한 설문내용이 이어집니다. 계속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신이 온라인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글자”로 이루어진 캡차 입력을 요구받았다고 가정하고 상자 안을 채워주세요.



위의 이미지를 보이는 대로 입력해주세요. (대소문자 구분 없음)

[이미지 새로고침](#)

확인

4. 당신은 위 3번의 글자 캡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캡차를 입력하는 것이 편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나는 이 캡차가 정보보안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나는 이 캡차가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이 캡차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이 캡차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당신이 온라인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그림”으로 이루어진 캡차 입력을 요구받았다고 가정하고 아래 캡차에서 요구하는 그림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당신은 위 5번의 그림 캡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캡차를 입력하는 것이 편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나는 이 캡차가 정보보안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나는 이 캡차가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이 캡차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이 캡차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다음 “글자”로 이루어진 캡차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캡차를 완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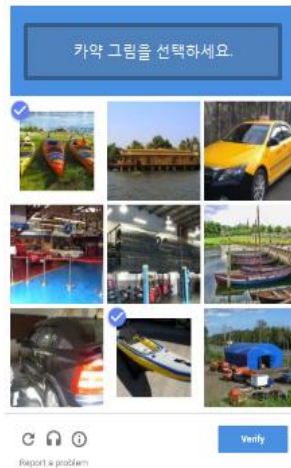


8. 앞 장에서 작성한 “글자”로 이루어진 캡차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캡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캡차를 입력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나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글자 캡차가 그림 캡차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나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그림 캡차가 글자 캡차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두 가지 캡차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한가요?	글 ()	그림 ()							
5	두 가지 캡차 중 어느 것이 정보보안에 더 적절할까요?	글 ()	그림 ()							

- 뒷장에서 계속 -

9. 다음 여러 종류의 캡차를 보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캡차를 5개 골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연구 2> 보상프로그램(쿠폰A- reachability 높음)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연구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은 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각 문항은 귀하의 생각으로 솔직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이며, 수집된 설문자료는 본 연구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지도교수 현 정 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이 경 은

*

1. 아래 제시된 각 상황에 대해 각각 2개의 진술문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2개의 진술문 가운데 주어진 상황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골라 ()안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정답은 없으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목록 만들기 ① 조직화하기 () ② 할 일 적기 ()
2	읽기 ① 인쇄물의 줄 따라 내려가기 () ② 지식 얻기 ()
3	군대에 지원하기 ① 국가의 방어를 도와주기 () ② 군대에 자원하기 ()
4	세탁하기 ① 옷에서 냄새 없애기 () ② 옷들을 세탁기에 넣기 ()
5	사과 집기 ① 무언가 먹을 것을 획득하기 () ② 나뭇가지에서 사과를 따기 ()
6	나무 베기 ① 도끼 휘두르기 () ② 빨간 얻기 ()
7	카펫을 깔기 위해 방 크기를 측정하기 ① 리모델링 준비하기 () ② 줄자 사용하기 ()
8	집 청소하기 ① 개인의 청결함을 보여주기 () ② 진공청소기로 방을 청소하기 ()
9	방을 페인트 칠하기 ① 붓 칠하기 () ② 방을 새롭게 보이게 만들기 ()
10	임대료 지불하기 ① 살 장소를 유지하기 () ② 지불수표 작성하기 ()
11	실내 화초 기르기 ① 식물에 물주기 () ② 방을 멋있어 보이게 만들기 ()
12	문 잠그기 ① 열쇠로 자물쇠 걸기 () ② 집을 보호하기 ()
13	투표하기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 ② 투표용지에 마킹하기 ()
14	나무에 오르기 ① 좋은 경치 보기 () ② 나뭇가지 붙잡기 ()
15	성격 테스트 질문지 기입하기 ① 질문에 응답하기 () ②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기 ()
16	이빨 닦기 ① 충치 예방하기 () ② 입 안에서 칫솔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기 ()
17	시험보기 ① 질문에 응답하기 () ② 개인의 지식수준을 보여주기 ()
18	누군가와 인사하기 ① 안녕이라 말하기 () ② 친근함을 나타내기 ()
19	유혹에 저항하기 ① “아니오”라고 말하기 () ② 도덕적인 용기를 보여주기 ()
20	먹기 ① 영양분을 섭취하기 () ② 씹고 삼키기 ()
21	정원 가꾸기 ① 식물 심기 () ② 신선한 채소를 얻기 ()
22	자가용으로 여행하기 ① 지도를 보며 길 따라가기 () ② 시골길 구경하기 ()
23	충치 치료하기 ① 치아를 보호하기 () ② 치과의사에게 가기 ()
24	아이에게 말 걸기 ①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 ②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
25	초인종 누르기 ① 손가락 움직이기 () ② 누군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

2. 당신은 오늘 커피숍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음료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 쿠폰 및 커피숍에 대해 귀하가 어떻게 느끼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봉투를 열어 쿠폰을 확인하세요>

오늘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 쿠폰은 음료 1개를 구입할 때마다 스탬프 1개를 받을 수 있고, 10개를 모으면 무료로 음료 하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커피를 하나 사고 쿠폰을 받았는데, 스탬프 4개는 이미 찍혀 있어 앞으로 6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음료 하나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설문내용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이 커피숍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나는 이 쿠폰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나는 이 쿠폰의 빈 칸을 모두 완성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나는 이 커피숍을 자주 방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내가 이 쿠폰의 빈칸을 모두 완성하는 것은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나는 이 쿠폰을 완성하여 무료 음료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나는 이 쿠폰을 완성하기 위해 커피숍을 자주 방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나는 이 쿠폰을 완성하는데 ()일이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	()일								
9	나는 이 쿠폰의 혜택이 구체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나는 이 쿠폰의 혜택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다음은 평소 커피숍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 커피숍을 자주 이용한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2	나는 일주일에 ()번 커피숍을 이용한다.	()번		
3	나는 쿠폰을 주는 커피숍에 더 애착이 간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4	나는 쿠폰을 완성하여 무료 음료를 받은 경험이 많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5	나는 평소 목표가 생기면 꼭 달성을 하는 성격이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4. 다음 문항들은 설문조사의 통계를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 ① 중·고등학생 ② 대학생 ③ 일반인 ④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공무원 ③ 사무/회사원 ④ 자영업 ⑤ 전문직 ⑥ 교사직 ⑦ 가정주부
⑧ 무직
⑨ 기타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 2> 보상프로그램(쿠폰B-reachability 낮음) 설문지

2. 당신은 오늘 커피숍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음료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 쿠폰 및 커피숍에 대해 귀하가 어떻게 느끼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봉투를 열어 쿠폰을 확인하세요>

오늘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 쿠폰은 음료 1개를 구입할 때마다 스탬프 1개를 받을 수 있고, 7개를 모으면 무료로 음료 하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커피를 하나 사고 쿠폰을 받았고, **앞으로 6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음료 하나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커피숍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2	나는 이 쿠폰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	나는 이 쿠폰의 빈 칸을 모두 완성하겠다.	①	②	③
4	나는 이 커피숍을 자주 방문할 것이다.	①	②	③
5	내가 이 쿠폰의 빈칸을 모두 완성하는 것은 쉽다.	①	②	③
6	나는 이 쿠폰을 완성하여 무료 음료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7	나는 이 쿠폰을 완성하기 위해 커피숍을 자주 방문할 것이다.	①	②	③
8	나는 이 쿠폰을 완성하는데 ()일이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	()일		
9	나는 이 쿠폰의 혜택이 구체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10	나는 이 쿠폰의 혜택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연구 3> 시간적 거리 및 수강신청 (가까운 미래- 2주 후)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은 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각 문항은 귀하의 생각으로 솔직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설문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지도교수 현 정 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이 경 은

1. 아래 그림을 보고 직선위에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께서 “2주 후”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화살표시() 해 주십시오.

현재(2016년)

- 뒷장에서 계속-

2. 귀하가 수강해야 하는 한 과목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2주 후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과목들에 대한 설명을 읽고,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A	과목 B
선배들의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 추천하는 과목 - 난이도가 높은 편 - 숙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을 받은 적이 없는 과목 - 난이도가 낮은 편 - 숙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음
과목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지식을 갖게 됨 - 1교시(아침 9시)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상식을 갖게 됨 - 6교시(오후 2시)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 과목을 수강신청 할 의향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나는 이 과목에 호감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면 나는 이 과목을 수강하겠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가치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쉽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쉽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3. 다음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2주 후”는 가깝게 느껴진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2	“2주 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3	“2주 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4. 아래 제시된 각 상황에 대해 각각 2개의 진술문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2개의 진술문 가운데 주어진 상황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골라 ()안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정답은 없으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목록 만들기 ① 조직화하기 () ② 할 일 적기 ()
2	읽기 ① 인쇄물의 줄 따라 내려가기 () ② 지식 얻기 ()
3	군대에 지원하기 ① 국가의 방어를 도와주기 () ② 군대에 자원하기 ()
4	세탁하기 ① 옷에서 냄새 없애기 () ② 옷들을 세탁기에 넣기 ()
5	사과 집기 ① 무언가 먹을 것을 획득하기 () ② 나뭇가지에서 사과를 따기 ()
6	나무 베기 ① 도끼 휘두르기 () ② 뿔감 얻기 ()
7	카펫을 깔기 위해 방 크기를 측정하기 ① 리모델링 준비하기 () ② 출자 사용하기 ()
8	집 청소하기 ① 개인의 청결함을 보여주기 () ② 진공청소기로 방을 청소하기 ()
9	방을 페인트 칠하기 ① 붓 칠하기 () ② 방을 새롭게 보이게 만들기 ()
10	임대료 지불하기 ① 살 장소를 유지하기 () ② 지불수표 작성하기 ()
11	실내 화초 기르기 ① 식물에 물을주기 () ② 방을 멋있어 보이게 만들기 ()
12	문 잠그기 ① 열쇠로 자물쇠 걸기 () ② 집을 보호하기 ()
13	투표하기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 ② 투표용지에 마킹하기 ()
14	나무에 오르기 ① 좋은 경치 보기 () ② 나뭇가지 붙잡기 ()
15	성격 테스트 질문지 기입하기 ① 질문에 응답하기 () ②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기 ()
16	이빨 닦기 ① 충치 예방하기 () ② 입 안에서 칫솔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기 ()
17	시험보기 ① 질문에 응답하기 () ② 개인의 지식수준을 보여주기 ()
18	누군가와 인사하기 ① 안녕이라 말하기 () ② 친근함을 나타내기 ()
19	유혹에 저항하기 ① “아니오”라고 말하기 () ② 도덕적인 용기를 보여주기 ()
20	먹기 ① 영양분을 섭취하기 () ② 씹고 삼키기 ()
21	정원 가꾸기 ① 식물 심기 () ② 신선한 채소를 얻기 ()
22	자가용으로 여행하기 ① 지도를 보며 길 따라가기 () ② 시골길 구경하기 ()
23	충치 치료하기 ① 치아를 보호하기 () ② 치과의사에게 가기 ()
24	아이에게 말 걸기 ①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 ②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
25	초인종 누르기 ① 손가락 움직이기 () ② 누군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

5. 귀하의 현재를 기준으로 2주 후에 대하여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은 시간	매우 많은 시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6. 아래 그림을 보고 직선위에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께서 “2주 후”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화살표시() 해 주십시오.

현재(2016년)

2030년

※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 귀하의 나이는? (만 세)

끝. 감사합니다.

<연구 3> 시간적 거리 및 수강신청 (먼 미래- 1년 후)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은 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각 문항은 귀하의 생각으로 솔직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설문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지도교수 현 정 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이 경 은

2. 아래 그림을 보고 직선위에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께서 “1년 후”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화살표시() 해 주십시오.

현재(2016년)

- 뒷장에서 계속 -

2. 귀하가 수강해야 하는 한 과목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1년 후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과목들에 대한 설명을 읽고,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A	과목 B
선배들의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 추천하는 과목 - 난이도가 높은 편 - 숙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을 받은 적이 없는 과목 - 난이도가 낮은 편 - 숙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음
과목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지식을 갖게 됨 - 1교시(아침 9시)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상식을 갖게 됨 - 6교시(오후 2시)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 과목을 수강신청 할 의향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나는 이 과목에 호감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면 나는 이 과목을 수강하겠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가치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쉽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쉽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3. 다음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1년 후”는 가깝게 느껴진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2	“1년 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3	“1년 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4. 아래 제시된 각 상황에 대해 각각 2개의 진술문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2개의 진술문 가운데 주어진 상황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골라 ()안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정답은 없으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목록 만들기 ① 조직화하기 () ② 할 일 적기 ()
2	읽기 ① 인쇄물의 줄 따라 내려가기 () ② 지식 얻기 ()
3	군대에 지원하기 ① 국가의 방어를 도와주기 () ② 군대에 자원하기 ()
4	세탁하기 ① 옷에서 냄새 없애기 () ② 옷들을 세탁기에 넣기 ()
5	사과 집기 ① 무언가 먹을 것을 획득하기 () ② 나뭇가지에서 사과를 따기 ()
6	나무 베기 ① 도끼 휘두르기 () ② 뿔감 얻기 ()
7	카펫을 깔기 위해 방 크기를 측정하기 ① 리모델링 준비하기 () ② 줄자 사용하기 ()
8	집 청소하기 ① 개인의 청결함을 보여주기 () ② 진공청소기로 방을 청소하기 ()
9	방을 페인트 칠하기 ① 붓 칠하기 () ② 방을 새롭게 보이게 만들기 ()
10	임대료 지불하기 ① 살 장소를 유지하기 () ② 지불수표 작성하기 ()
11	실내 화초 기르기 ① 식물에 물을주기 () ② 방을 멋있어 보이게 만들기 ()
12	문 잠그기 ① 열쇠로 자물쇠 걸기 () ② 집을 보호하기 ()
13	투표하기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 ② 투표용지에 마킹하기 ()
14	나무에 오르기 ① 좋은 경치 보기 () ② 나뭇가지 붙잡기 ()
15	성격 테스트 질문지 기입하기 ① 질문에 응답하기 () ②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기 ()
16	이빨 닦기 ① 충치 예방하기 () ② 입 안에서 칫솔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기 ()
17	시험보기 ① 질문에 응답하기 () ② 개인의 지식수준을 보여주기 ()
18	누군가와 인사하기 ① 안녕이라 말하기 () ② 친근함을 나타내기 ()
19	유혹에 저항하기 ① “아니오”라고 말하기 () ② 도덕적인 용기를 보여주기 ()
20	먹기 ① 영양분을 섭취하기 () ② 씹고 삼키기 ()
21	정원 가꾸기 ① 식물 심기 () ② 신선한 채소를 얻기 ()
22	자가용으로 여행하기 ① 지도를 보며 길 따라가기 () ② 시골길 구경하기 ()
23	충치 치료하기 ① 치아를 보호하기 () ② 치과의사에게 가기 ()
24	아이에게 말 걸기 ①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 ②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
25	초인종 누르기 ① 손가락 움직이기 () ② 누군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

5. 귀하의 현재를 기준으로 1년 후에 대하여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은 시간	매우 많은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아래 그림을 보고 직선위에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께서 “1년 후”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화살표시(↓) 해 주십시오.

현재(2016년)

2030년

※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 귀하의 나이는? (만 세)

끝. 감사합니다.